東大新聞

1998년 (불기 2542년) 5월 11일 (월요일) 제1248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부주간 고창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2 FAX (02)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 770-2057

금주일언

욕심을 줄기어 스스로 방자(放恣)하면 법(法)이 아닌 것만 더할 뿐이다. 변한다는 걸 보도 듣지도 못하는가? 수명(壽命)은 덧없는 것이다.

법구경 · 무상품 17절

개교 92주년

민족과 함께 한 한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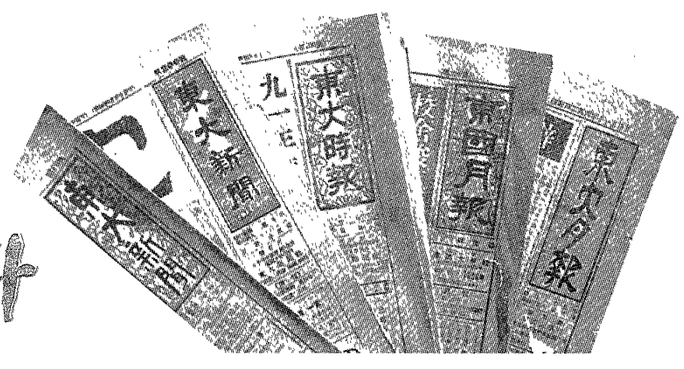
인류와 함께 할 한세기

지면안내

2면 개교한지 92주년 한 '기념' 할만 하지. 이사장님의 기념사도 남달라
6면 봄, 여름, 가을 농활. 난 봄 농활부터 시작이다!
함께 땀흘리는 재미 '솔솔'.
7면 대동제는 술먹는 놀자판?
주점에 대한 찬반 지표뉴스가 나왔있다.
난 대동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8면 92주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지닌 우리학교.
앞으로 21세기도 엄청(?)나게 준비해야 쥐~
16일,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IMF의 시대상황에 역행한다고!
12면 90년대의 민중가요는 어디로 가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 꽃다지여 영원히~

수습기자 모집광고

동대신문의 역사는 여러분이 이어갑니다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 · 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 · 사진기자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5월 21일(목) 오후 5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캠 · 경주캠 5월 21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 해외연수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일본문화개방

△퇴폐문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퇴폐문화가 일본문화는 아닙니다. 문화 충돌은 우리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꺼라 믿습니다.
△저질만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보다는 당당히 수입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입이라뇨? 문화는 '재화'가 아닙니다. '개방'이란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개방은 찬성입니다.
△일본문화 수입은 필요악이다.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 해야된다.
△'잘해야 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문화 속에서 잘못된 일본문화의 뿌리부터 제거한다면 다른 문화들의 유입처럼 부작용 없이 수용될 것이다.
△과연 외래문화 중 부작용 없이 수용된 문화가 몇이나 될까? 그것을 선별하고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다. 잘못된 일본 문화의 제거 후 그것을 수입한다는 것은 수백년이 걸려도 못해낼 일이다.
△언제 문화를 수입하면서 진정으로 선별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기는 한가? 이런 논쟁을 뭐하려 하지?
△이런 논쟁을 함으로써 발전이 있는 것 아닐까? 시대착오적인 회의에 빠지지 말자.
△쌀 개방하고 이젠 문화 개방까지? 왜 속옷까지 다 개방하시지 그래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텐데.
△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문화의 기술적인 면은 일본이 훨씬 앞서니깐 그치만 인정은 하되 냉정해야겠죠?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
△현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면 무조건적이 아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어떨지….
△온고지신? 신토불이? 동도서기?
△경제식민지에서 문화식민지까지 또 한 번의 식민지 시대….
△슬램덩크는 뭐냐? 세일러문도 일본꺼 아니냐?
△미국문화는 받아들이면서 일본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화적 차별이다. 차라리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가 평가해 보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먼저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살리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여야….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선입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다향관 학생 · 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김치볶음밥(1200)	소고기야채밥(1300)
	카레라이스(2000)	콩나물 볶음밥(2000)
화	반계탕 특식(700)	
	오징어 덮밥(2500)	스파게티(2000)
수	오징어소면무침(1300)	어묵볶음밥(1200)
	모듬비빔밥(2000)	햄야채볶음(2000)
목	산채비빔밥(1300)	고구마볼미밥(1300)
	제육볶음(2500)	버섯덮밥(2500)
금	닭도리탕(1500)	마파밥(1200)
	후랑크볶음밥(2000)	탕수육 백반(2500)
토	쇠음배추조가국(1200)	
	오므라이스(20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 · 학생식당 차림표

월	뚝배기불고기(3200)	카레라이스(2500)
	참치볶음밥(1300)	돈육풋고추찌게(1300)
화	생선초밥(3000)	콩나물볶음밥(2000)
	반계탕(700)	
수	복어양념구이(3000)	비엔나볶음(2500)
	오징어볶음(1300)	하이라이스(1200)
목	열무비빔밥(2800)	제육덮밥(2500)
	갈비탕(1500)	후랑크야채볶음(1300)
금	튀김우동(2500)	소고기볶음밥(2500)
	제육볶음(1500)	고구마볼미밥(1300)

(단위:원)

개교 기념 치사

웅혼한 기상 … 동국발전의 한길로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동국대학교가 개교한지 92주년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개교 이래 우리 동국은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였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 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해방 후에도 격동과 혼돈으로 점철된 민족사의 명암과 그 운명을 같이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지나 실로 오늘의 명문 사학 동국으로 성장,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도하거나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91년을 보낸 지금 동국발전은 제2의 창업처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목첩에 두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은 물론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지표와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내실있는 민족의 대학, 특색있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실현해 나아갈 힘을 길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민족은 IMF라는 경제난국 하에 6월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파고와 진통은 대학이라고 예외일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남보다 먼저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대안을 과감히 추진해야할 소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은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추진 등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인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실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불교종합병원 건립이야말로 1600년 한국불교계의 숙원불사입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응시하고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우뚝설 동국의 웅혼한 기상을 예감하면서 거듭, 일산의 불교종합병원 건립, 제3캠퍼스의 조성등 역사적인 교육사업들을 하나하나 알차게 이룩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귀감으로 삼아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며 우리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진하되, 순리와 정도를 외면하거나 부실과 졸속으로 후세에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모처럼 이룩한 이 동국중흥의 대역사를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불교계와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다같이 동국발전이라는 목표아래 화합 동참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 녹 원
이사장

봉정암

하늘과 땅이 어우러져 만든
신비의 설악산
기암절벽 뾰족하고 넓은
봉우리들

그 중에서
봉황의 정수리처럼 높고
부리같이 툭 불그러진 기암괴석

신라 천년의 신비의 석탑
머리위에 이고 있는 봉정암

비바람이 불어도 누보라 쳐도
변함없이 묵묵히 서있는 것은
임의 모습일까

저능선 그림자처럼
자장율사는 말없이
임을 안고

정팽영(상정스님)
인문대 국악과 범패전공

국어국문학부 새내기 백일장 산문부 장원작

그 남자의 지갑들

"타이타닉 2장 주세요."

한 남자가 좁은 구멍 속으로 돈을 건넨다. 표 두 장에 각기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이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다.

'이 남자의 지갑은 갈색 반지갑이네. 오호, 안쪽엔 여자 사진도 있는걸? 별로 이쁘진 않네, 뭐. 아직 결혼 전인것 같은데 둘이 잘 어울리겠군.'

넓찍한 유리 중간에 뚫려 있는 반원형의 좁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저마다의 손, 또 그 각각의 손에 들려 있는 지갑들.

그 '지갑'이란 것들에 대해서 Y는 나름대로의 철학적 공식을 세우고 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그 속에 탄 사람들의 신발만 봐도 각자의 직업이나 대략의 성격이 느껴진다는 어느 수필가의 말처럼, Y 역시 지갑 주인들의 대한 약간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흔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반지갑 속에서 역시 반으로 접힌 지폐들을 꺼낸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 아마 지갑들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이 반지갑이 그 무게중심쯤은 될 거라고 Y는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갑 한 쪽에 직위가 쓰인 명함과 함께 애인의 사진을 단정히 꽂아 놓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수많은 명함과 사진보다도 Y를 더욱 기분좋게 해 주는 것이 있다. 지갑 속으로 얼핏얼핏 보이는 코팅된 자격증들을 보게 되면 Y는 자신이 그 지갑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우쭐해진다. 단순한 신용 카드나 주민등록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증'들이기 때문이다.

애인끼리 똑같은 지갑을 같이 껴내는 경우도 있다. 주로 젊은이들이 그러한데, 까만 소가죽으로 된 예쁜 장지갑과 역시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반지갑 한 쌍은 무척 세련되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자 표값을 계산하는 모습이 Y로 하여금 왠지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한다.

가끔 중년 남자들의 손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건네 받곤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지갑은 무척 큰 장지갑임을 보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그는 분명 지갑보다는 호주머니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리라.

다 해진 지갑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스티치한 여자와 없어진 지퍼 고리를 철사로 다시 엮어 만든 꼼꼼한 아줌마. Y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보기 힘들어짐을 새삼 깨닫곤 한다.

일주일 전, Y는 무척 예쁜 갈색의 지갑을 주웠었다. 그 안에 든 어느 젊은 여학생의 사진을 보면서 전화 다이얼을 돌리던 Y는 히죽거리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막상 주인과 통화한 Y는 그 지갑의 임자가 남자, 그것도 50대 후반의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세상에 없는 딸아이의 지갑을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Y는 미안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뿌듯함마저 느꼈다.

밤 11시.

매표소의 판자문을 나서며 Y는 생각한다.

'내일은 나도 지갑을 하나 새로 장만해야겠군. 요즘 유행하는 원색의 큰 걸 살까? 아니지,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학원이나 알아봐야겠네. 내 지갑에도 자격증 하나쯤은 있어야지, 암.'

김한송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농활일기

직접 체험해 보니 '우리농촌'이란 생각들어요

농활? 대학 생활의 낭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2학년이 되어 농활 가자는 선배의 권유에 그저 재미있겠지하는 생각으로 선뜻 응했다. 농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한체 준비도 없이 농활을 가게 되었다.

첫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제천에 도착했다. 둘째날은 비가 온 뒤라 일거리가 많지 않았고 마을 청소와 유격대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정도였다. 마을 청소를 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녔는데 농촌 특유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져 어릴적 기억이 났다. 밤에는 분반활동을 했다. 농활의 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봄 농활이라는 한계때문인지 우리의 열의가 부족했던지 농민들의 참여가 너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어릴적 얘기, 6·25 때의 어려웠던 얘기 등을 들으며 순박한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댓거리도 했는데 피곤했던지 많이 졸았다.

셋째날은 정말 농활다운 농활을 했다. 어머니께서는 인삼밭을 만들려고 논을 파헤쳤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시 논으로 바꾸려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1200평이나 되는 밭에서 돌을 주웠다. 그렇게 돌이 끔찍하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어머니와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 한숨을 쉬셨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우리 할머님보다 연세가 많으셨다. 아직도 논밭을 갈며 일을 하신다고 하니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다.

중간중간 나온 새참은 정말 꿀맛이었고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난 후는 힘든 것도 잊은 채 일할 수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놓은 점심상 앞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문반활동을 했다.

마지막 밤, 총화를 하고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기쁨과 못다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잠들었다. 제천역에서 보고집회를 하고 기차로 집에 도착했다. 이런저런 바쁜 일정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3박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농민과 함께 일해보면서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느낀 보람찬 농활이었다.

김근혜 (사범대 역사교육과)

동악광장

목멱길

축하합니다

△써니 생일 정말 추카. -정
△신혜의 스물두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J·W
△11일, 71일만에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짱& 이쁜이
△5월 6일 은혜의 생일을 종선 언니가 축하해요. -탈
△박원장 취임을 마니 마니 축하합니다. -ROTC 사회과 37기
△사랑하는 미정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法95 한상경
△박기혁 제대 축하해요! -경제 93학번 이일주
△진정한 10개가 됨을 축하드려요. 처녀비행 축하해요. -바람소리 이쁜이들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농활대원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겸허한 자세로 삽시다. -우수한
△봉사분과 ELF 집행부, 98새내기 여러분 춘계 MT 수고 많으셨어요. 멋진 창립제 기대할께요.
△메이데이 기획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민중사랑 일동
△악으로 깡으로! 9기 수고 했습니다. -8기 선배들
△98학생대표자회의 성사를 위한 민족동국 선전단 '승리'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주인
△한총련 봄농활 야총 농활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구곡 1리의 담가 햇볕을 잊지말고 여름 놀활에도 꼭! -야총 학술

그리고…

△12일 사회학과 예비군 훈련날입니다. 예비군 1년차 분께서는 일직 나오셔서 정렬해 있길 바랍니다.
△동국대가 선봉에서 총파업을 사수하자! -당
△4월 24일 사과계열 공동과목 조사방법론 중간고사 기간 중 강의실 앞 창가에서 게스 시계를 습득·보관 중이오니 주인께서는 재빨리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 97 안은호
△생명자원경제학과 3학년 수학여행 잘 다녀오세요. 흑흑. -못가는 진

온방길

축하합니다

△중문 91 정범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중문학과 4년 일동
△법학과 GOLD가 보송이를 낳았어요 -?
△은희야!(국제관계학과 4년) 생일축하, 싸랑해. -오빠가
△중기야 생일 축하한다. -11대 예과 학생회
△민숙아 지났지만 다시 한번 니 생일 축하해. 언제나처럼 밝고 이쁘길. -HAN
△5월 5일 화랑선무부 13기 이희태 선배의 생일을 축하. -14기
△김수한 생일 추카해 -소녀비
△호민아 잘 되길 바래. 니가 찜한 그 사람이랑 말이야. -이쁜천사
△ 노청아 귀빠진 날 10일 축하한다. -지·중·헌·명
△농심아! 미리 생일 축하해 -소녀가
△철선배 결혼을 축하드려요. -이마 넓은 이쁜애
△옥희씨! 너무 많이 걷지마. 큰 일날껴예요. 그 남자친구랑 잘되길 빌께요. -이쁜 2년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SJ 잘해봐라. 동아리 기획 고생많았다. -96**S
△ 한문학과 비록 졌지만 더운 날씨에 경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가못해서 죄송하구요. -987S
△국악과 신입생 여러분! 공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느 외로운 관객
△지형아, 아픈만큼 성숙해 지는 거야. 힘내라, 화이팅! -회계 종
△정애야, 우리 열심히 살자. 서로 소중히 아끼며 -老7
△한승철 선생님 힘드시죠? 그래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 주시구요. 지치지 마시구요. -012제자
△혜현아 힘들지? 언니도 다알아. -못난이 언니가
△동국농구부 주최로 학과대항 농부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신, 성

그리고…

△5206아! 편지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구나. 혹시 했는데 역시구나. -바보7843
△하경! 건강하라. 꼭 여자친구가 생기길. -허식이가
△미안하구나 은미씨. 이제도 삐삐 씹어서.
△빵 아저씨! 5일에 있었던 '수상낙원' 정말루 좋았어요. -소녀가
△조경학과 친구들아 아웃사이더에게도 용기를 줘 -멋쟁이
△군대가신 태훈형·용우형 만수무강 하소서 -진·해경

전문분야봉사회 발대식

총9개 단체, 5월중 봉사활동 시작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 7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총 9개 봉사회 2백여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분야별 봉사회 발대식 및 예비교육'을 실시했다.

전문분야별 봉사회는 △불우이웃돕기봉사회 △남산사랑봉사회 △긴급구조봉사대 △컴퓨터봉사회 △헌혈봉사회 △낭독봉사회 △손짓사랑봉사회 △자비실천봉사회 △농어촌봉사회 등이며, 이들은 5월중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봉사활동 분야를 전문화함으로써 효율성과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학 프로젝트 첫 결실

오는 2천년까지 연구진행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의 우수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본교의 과학기술교육에 도움을 주기위한 취지로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쌍방간의 산학협동이 지난 5월1일 처음으로 산학프로젝트를 계약·체결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산학협동 프로젝트는 △충진제 함유에 따른 유동학적 연구 △기능성 실리콘 공중합체에 관한 연구 △수계 고분자 에멀젼 필름의 형성과 건조에 관한 연구 등 3개 연구과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2천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총연구비 2억8천만원의 연구사업과 2억2천만원상당의 실험장비 14개 품목기증 등 2개분야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산학협동과 관련, 본교의 실무대표를 맡았던 김병식(화학공학) 과학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발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승의 날 행사마련

'선생님께 감사 편지와 선물을'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과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본교 재학생이 작성한 편지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는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11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학생에게 선물과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던 지난해의 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직접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문화의 꽃 '대동제' 활짝

11·12일 해오름마당 … 13일부터 목멱대동 한마당

본교 제30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이하 총학)는 이번주를 '총학 출범 및 대동한마당 주간'으로 선포하고 오늘(11일)과 내일(12일) 이틀간 총학생회 해오름마당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98목멱대동 한마당을 각각 개최한다.

다양한 대학문화를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보이자는 취지로 본마당은 새내기문예단과 중앙공연단 공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각 단과대 학생회장) 인사, 총·부총학생회장 옹립에 이은 30대 총학생회 출범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총학생회 출범에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목멱대동 한마당의 일정을 살펴보면, △불상앞 상설공연(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13일: '경당', 국교과 노래패 '얄라셩', 사범대 노래패 '불휘', 14일:경상대 노래패 '산하', 역교과 몸짓패 '한민족의 몸짓', 불교합창단, 야총 풍물패 '마당', 몸짓패 '총총' △영화제(오후 1시부터 소강당)-13일:한국영화 '씻김', '한국학생운동사', '똘이장군' 14일: '나쁜영화', '하나비' 15일:단편영화 모음(햇빛자르는 아이, 기념 촬영, 딸기, 지구 소년, 작은 행복, 우리 낯선 사람들, 스윙 다이어리 등), '변방에서 중심으로' △기획공연-'대학문화 자리찾기'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열리며 안치환, 꽃다지, 메이데이, 프리다칼로, 학내 노래단, 단과대 풍물패 연합 등이 출연 △소강당 문화제-14일 오후 5시 사범대 노래패 '불휘' 공연 △관굿 경연대회-14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각 단과대 풍물패 참가 △기획행사- '김준호, 손심심 부부 공연(15일 오전 11시, 불상 앞)', '전통혼례(15일 오후 3시 불상 앞)',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장터', '버튼 만들기', '체험! 대자보 문화', '새내기 경필대회' 등이다.

이번 대동한마당은 현재의 경제난 등을 고려해, 좀 더 알뜰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아나바다 장터와 버튼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됐다고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근호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총학생회 구성이 늦어져 해오름마당과 대동한마당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지만, 학생회의 대중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 주간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내기 농구대회는 32개 학과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3일 오전 10시 만해광장에서 인문학부와 건축토목공학부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2일까지 열린다.

축하합니다 … 지난 7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장기근속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 오인택 기자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16일

학내 주체 우려의 목소리 … 오늘(11일) 총장 설명회

본교 부속 양·한방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및 축하공연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일산의 실험농장에서 열린다.

이번 기공식은 △삼귀의 △독경 및 축원 △경과보고 △병원건립 영상물 상영 △이사장 치사 △총장 식사 △내빈 축사 △내빈 소개 △사홍서원 △시폭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서는 불자연예인을 비롯 본교 재학생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출연 연예인은 김병조·홍진경 사회를 비롯 신영희, 장미화, 최진희, 김흥국, 설운도, 김민종, 김수근, HOT, 태사자, 이지훈, OPPA 등이다.

한편,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마련을 위해 2천만 불자들과 함께 하는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 및 지역순회 법회, 건립불사 설명회 등이 향후 5년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행사관계자는 "기공식 행사는 불교종합병원을 많은 불자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조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불교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불교종합병원 기공식과 관련해,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는 지난 2일 서울·경주간 교수 대의원회를 소집, 병원건립의 의의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제 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건립을 서둘러야 하는가 △병원건립의 막대한 예산조달 방법을 구체적 명시하여 현실성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투명한 계획의 공개와 협조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등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교수회를 비롯한 총학생회, 직원노조, 대학원 총학생회의 학내 주체 대표들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늘(11일) 오후 4시 30분에 학술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송석구 총장이 불교종합병원건립 준비과정 및 진행경과, 재원조달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연구 기관 및 교직원 선정

연구 장려금·연구기자재 지급 등 특전 부여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연구부는 97학년도 우수연구기관 및 교외연구비 수주 우수 교수와 우수교원을 선정·발표했다.

본교 부속(설)연구기관 및 교수들의 연구의욕 증진과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선정에서 우수연구기관은 97학년도 1년 동안의 연구비 확보실적, 학술세미나개최 등 학술활동실적, 학술지 발간 등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교외연구비 수주 우수자는 지난 1년동안 교외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수주한 교수가 계열별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수상기관과 수상자에게는 연구장려금과 연구기자재 지급 등 특전을 부여한다.

우수연구기관으로는 △인문계열-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부) △사회계열-경제·경영연구원(원장=황용호·회계학부) △자연계열-산업기술연구원(원장=이문보·건축토목공학부), 교외연구비 수주 우수자는 △인문계열-정승석(불교학부) △사회계열-이원부(경영학부) △자연계열-강태원(자연과학부) △의학계열-강병수(의학) 등이며, 우수 부속기관으로는 경주캠 박물관이 선정되었다.

개교 92주년을 맞이하여 학문적 업적과 연구 및 창작활동 등을 바탕으로 선발된 우수 교원은 △인문계열-이기동(인문학부) △자연계열-원치선(전자·전기공학부) △사회계열-이충기(경주캠 관광경영학부) △예체능계열-윤소희(경주캠 국악과) 등이며, 선정된 우수교원에게는 3백만원의 연구장려금과 99년도 책임강의시간 3시간 경감과 각종 연구비 및 연구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우수기관과 우수교원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성연구장려센타로 선정

SRC 3년간 1억원씩 연구비 지원

한국과학재단의 98우수연구센터(SRC)지원사업에서 본교 강태원(자연과학부) 교수가 신청한 '극한물질밴드갭제어 과학연구센터'가 특성연구장려센터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전국 33개 대학 70여 연구소가 신청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이번 결과와 관련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본교가 특성장려연구센터로 선정됨으로써 이공계 분야의 특성화 및 연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처님과 축제를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부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심리학자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 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시다. 부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밟으시던 날 하신 말씀이 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높다. 이 모든 세상의 존재가 다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지난주 동악은 그러한 현실의 와중에도 오색연등이 즐거운 흥을 더욱 돋구어 주었고, 천여명의 동국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수계식에 참여하였다. 나라 안팎이 경제 문제로 뒤숭숭한 지금,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흥겨운 축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대학생활의 낭만이나 여흥을 위해서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실로 기쁜 일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싯다르타 왕자는 그에게 약속된 영화를 마다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해 그의 젊음을 열정적으로 불사르셨다. 그리하여 그는 한 개인의 삶을 너머 온 인류의 안내자요, 위대한 스승이 되셨다. 만약 그 분이 당신의 친구라고 상상해보라. 그보다 멋진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젊은 날의 좌절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자네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야. 인생의 크고 위대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게. 정진하라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가능성의 싹을 지닌 존재이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과 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독존(獨尊)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부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분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 삶을 독려하고, 가장 커다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응원해주시는 스승이신 것이다.
무엇보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능성의 현현이시다.
젊은 날은 인생의 축제기이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본모습을 바라보며 존재의 꿈을 아름답게 펼쳐보자.

교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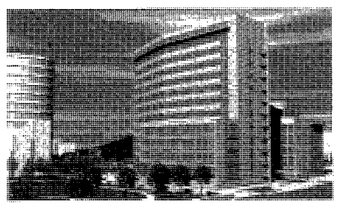
▲김영배(국어국문학부)=지난 5월 5일 신일고에서 열렸던 제19회 평북 도민의 날 행사에서 '증보평안방언 연구' 등 30여년간의 평안방언 연구로 '평안북도 문화상'을 수상

축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 동국대 개교92주년

1600년만에 피어나는 자비의 꽃봉오리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 건립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가
자비광명의 실천을 위해 일산신도시에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은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자비도량을
구현함은 물론 나라의 위기를 구국대불사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경제위기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립기공식 및 축하공연

일 시 : 1998년 5월 16일(토)
기공식 15:00, 축하공연 16:00~18:30
장 소 :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동국대 실험농장/고양 가구공단 입구)
사 회 : 김병조, 홍진경
출 연 : 신영희, 최진희, 설운도, 김흥국, 김혜연, 이지훈, 김수근, H.O.T, 태사자, O.P.P.A

행사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안내
역사적인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2천만 불자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02)260-3300
입금계좌 예금주 동국학원
국민은행 068-01-0373-353
제일은행 107-10-119210
조흥은행 313-03-002943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건립행사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 불교TV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 주간불교 · 대한불교 · 시대불교 · 고양시, 파주시 사암연합회 · 국민은행 · 제일은행 · 조흥은행

한총련·서총련 대대회 열린다

학생운동 혁신의 장 마련 기대…정부 강경방침으로 난항 예상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손준혁 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많은 학생들이 연행·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대의원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영남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당시 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유보됐던 상황에서, 당초 지난 4월 28일과 29일에 예정되었던 서총련 대의원대회는 의장후보자 등록이 늦어지는 등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의장선거와 그간 제기되었던 학생운동혁신 문제가 주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장선거는 본교 구준서 총학생회장과 김현배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후보등록을 마쳐 경선으로 치러진다. 또한 학생운동이 분열되어 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할 의장을 선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학생운동의 혁신 문제와 관련,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은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학생운동권의 문제들에 대한 혁신 논의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총련 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 본교 총학생회는 지난 4월 30일 '학생운동사수와 98학생대표자회의 성사를 위한 민족동국 선전활동단'을 발족, 불상 앞에서 천막농성과 학내선전전을 통해 △한총련·서총련 혁신과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IMF배후조정하는 미국반대 △고등교육법 시행 반대 △학생대표자회의 성사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왔다. 또한 오늘(11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총노선 채택,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서총련·한총련 대의원대회에 관한 입장 등을 안건으로 과학생회장 이상이 참여하는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 겨울방학때부터 논의되온 서총련과 서울지역 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의 임시의장에는 각각의 중앙상임위를 통해 본교 구준서 총학생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었다.

'이적단체규정'이라는 짐을 덜고 학생운동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서총련 대의원대회와 한총련 대의원대회 성사여부는 향후 전체 학생운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한총련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의 서총련·한총련 대의원대회 역시 정부가 기존의 강경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 등 난항이 예상된다.

유철주 기자

총여준비모임 무산

동악내 여성권익 퇴보 우려

총대, 준비모임 불인정…당분간 공백 지속될 듯

10여년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동악내 여학생의 권익신장운동이 퇴보할 위기에 놓여있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가 지난달 28일 총대의원회(위원장=신현찬·연영4 이하 총대)에 제출한 '총대 관할 13대 총여 특별위원회 제안'이 결렬돼 여학생 최고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3대 총여건설의 무산으로 총여는 그동안 총학생회칙 제4장 27조 '총대의원회에 대의원총회 정·부의장, 중앙위원회, 집행국,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두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회칙에 의거해 특별위원회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총대측은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대 산하 특별위원회는 예산분배, 감사, 선거, 회칙개정 등 총대 고유업무를 보장하는 기구'라며 '총여는 여학생들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총여준비모임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가 서지 못한 올해, 총여는 그동안 할당받아 오던 학생회비 중 5%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주간' '삐딱이대학' 등 그간 총여가 벌여왔던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다. 또한 현재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실은 '여학생들의 자치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총대측의 방침에 따라 일반 여학생들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돼 총여 고유의 공간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총여가 여학생자치기구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겪는 예산문제와 공간문제 보다 큰 문제는 바로 공신력 실추이다. 총여의 신순옥(영문3)양은 "학생회로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1년 동안의 총여 학생회의 공백은 그나마 동악내에 일궈놓았던 여성운동을 후퇴하게 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총여가 공신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학생들의 권리 보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예로 통신상에서 이화여대 한 학생이 본교 공과대의 신모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응해 각 대학 여성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펼쳤을 때 본교의 총여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했음을 들 수 있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이 사건이 각 대학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과 달리 공신력을 갖지 못한 총여는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특별위원회 무산과 관련, 신현찬 총대의장은 "13대 총여건설은 공식적 선거를 통해 무산됐으므로 어떠한 의의제기도 있을 수 없으며 총여가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은 총여의 일반사업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총대측은 현재 예비비로 적립돼 있는 총여의 예산을 '계속 적립해 내년에 활용', '중앙과 단위가 나누어 여학생들을 위해 활용' 등 여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9일 현재, 총여측은 총대의 방침이 내린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위원회 무산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여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인데 총대측의 결정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어둡기만한 총여의 미래. 동악내 여학생들의 권익신장도 어둡기만하다.

김미경 기자

회전무대

동상이몽

○…국민회의와 한국노총은 동상이몽의 관계인가?

여당과 친하게 지내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회의 측과 공천의석수에 대한 이해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이를 지켜 본 회전무대자 왈 "한국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선봉에 서고 있군"

지하타닉

○…지난 3일 중랑천 벌탐으로 지하철 7호선 침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참사·부실공사를 다시금 생각케 해준 계기라고.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호선을 타려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회전무대자 왈 "개봉박두 금세기 최고의 영화 '지하타닉' 미리 예약하세요"

경찰나라

○…시절이 하 수상하니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경찰이구나!!

요즘 학교 주위에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전경들이 부쩍 늘었는데.

깜박하고 학생증을 챙기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

그러나 끝까지 검문을 거부하고 당당히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어 이 용감한 한 학생 전경에게 던지는 한마디 "경찰 나라(놔라)! 경찰 나라(놔라)!"

뻔해광장

○…만해광장이 바로 뻔해광장?

요즘 동악은 하루가 다른 공사소음과 공사차량으로 만해광장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나마 농구를 하러 만해광장을 찾은 학생들은 힘이 쭉 빠져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새내기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더욱 조바심에 차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만해광장이여! 그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12일 고승초빙법회 개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월운 큰스님을 초청해 '고승초빙법회'를 실시한다.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내용으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일반 불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비나야' 등 번역·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달 말, '미사색부화혜오분율'과 '비나야'외 7권 및 '불설반니원경'외 5권 등을 묶어 번역·완간하였다.

'미사색부화혜오분율'은 총 15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나야'는 출가거인 비구와 비구니의 생활규범인 계율을 상세하게 설명한 경전이다. 또한 '불설반니원경'은 부처님과 열반 및 불성에 대한 고리를, 그외 5권은 입멸전후에 부처님께서 나타낸 여러 가지 신기한 조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총학출범기념 특식 제공

오늘(11일)과 내일 제30대 총학생회 출범주간을 맞이하여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오늘(11일) 하루동안 다향관과 동국관 학생회관에서 반계탕을 7백원에 판매한다.

대학생 위한 증권 강좌 실시

7일 덕암세미나실서…학생 중심 세미나 활성화 기대

'대학생 증권 강좌'가 지난 7일 오후 2시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경상대 주최,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증권강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서울소재 대학중 이화여대와 본교만을 선정해 개설한 것으로 경상대 학생들을 비롯, 인문·사회계열 학생 3백여명이 참가했다.

강좌는 △증권시장의 개념과 역할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코스닥 시장과 벤처 개피탈 △스톡옵션 제도 △주가지수 선물거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강식(경제통상학부) 경상대 학장은 "증권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시대에 증권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과 실무적인 강의를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기마다 학생회 중심의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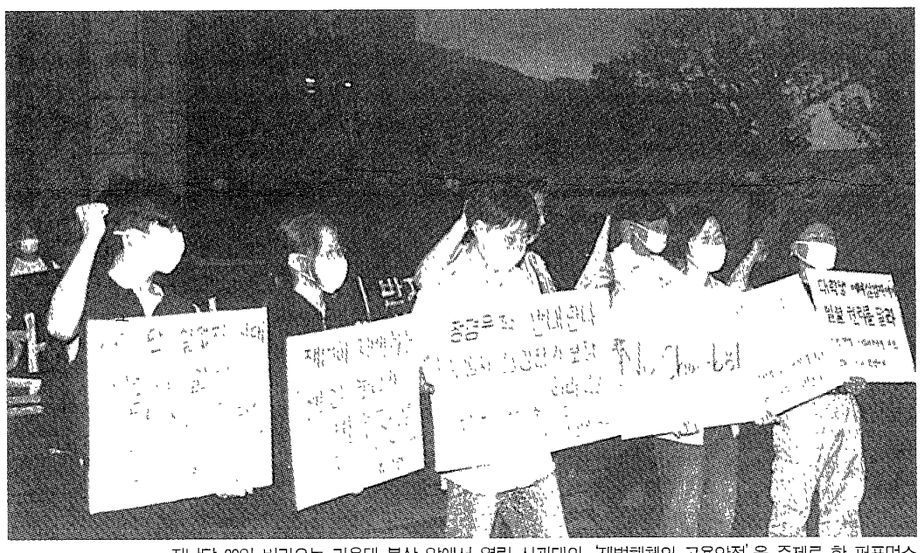
야구부 춘계리그전 출전

6일 현재 연승 행진

98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이 오는 22일까지 동대문 야구장과 건국대 야구장에서 열린다.

총 21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이번대회는 각조의 1위와 2위팀이 결승토노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이며, 본교 야구부는 B조에 속해 있다.

한편, 지난 3일 영남대와의 첫 경기에서 12대7로 첫승을 거둔 본교 야구부는 6일 건국대를 8대4로 이겨 현재 2승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 경기는 13일 중앙대와 있다.



우리의 바램 지난달 22일 비가오는 가운데 불상 앞에서 열린 사과대의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에서 학생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남대철 기자

생협대의원 총회 열려…사안 논의 미진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의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달 29일 제1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었으나 단순한 승인·보고 안건에만 그친채 잉여금 처분안 등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 없이 총회를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 및 대의원 승인 △97년도 결산 보고서 승인 △97회계년도 감사 보고서 승인 △9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만이 진행됐으며 잉여금 처분안 등의 사안은 5월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대의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각 조직 대의원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이사장을 비롯한 생협 사무국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내실있는 대의원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모집

98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8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28집
2. **투고대상**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수료생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고매수** : 인문·사회계-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한글로 작성시 A4용지 25매 분량)
   자연계-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한글로 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출부수** : 교정용 및 심사용 4부, 디스켓 1장
   (한글로 작성 요)
5.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부(☎ 260-3093~5)
6. **원고 마감일** : 98년 8월 28일(금요일)
7. **게재통보** : 98년 10월 심사종료후 개별통보
8. **발행예정일** : 99년 1월 29일(금요일)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제작 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

동국참사람 인증교육 제2기생 모집

1.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 목적

   동국참사람 인증 제도는 졸업생의 전문능력과 인성을 학교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본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동국참사람인증서**를 수여하여 학생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하고 인식케하는 기회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교육과정 : 인성교육(일주일간 공동체 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 교육(세부 교육 내용은 상담시 안내)
3. 교육기간 : 98년 9월 ~ 99년 8월(1년간), 학기중에 교육
4. 모집인원 : 50명
5.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8. 5. 11(월)~5.21(목) 09:00~17:00
   나) 원서접수장소 : 취업과 취업자료실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98. 5. 23(토) 10 00~, 취업과
6. 합격자 발표 : 98. 5. 27(수) 취업과 게시판 공고
7. 응시자격 :
   가) 98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으로서 평점평균 B0이상인 자로서
   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8.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서 〈소정양식〉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9.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시 외국어(TOEIC, TOFEL)성적, 컴퓨터관련 자격증, 봉사활동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할 것 ☎ 260-3054~5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학 생 처 장

특식 판매

생활협동조합에서는 98학년도 제30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특식을 제공하오니 학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일 시 : 98년 5월 12일
2. 장 소 : 동국관, 다향관 학생식당
3. 메 뉴 : 반계탕
4. 가 격 : 700원

생 활 협 동 조 합

공 고

98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이동 병무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98. 5. 14(목요일 1일간)
2. 시 간 : 10:00~16:30
3. 장 소 : 본관 취업자료실
4. 상담요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학 생 처 장

특별초청 강연회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특별초청 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98. 5. 13일(수) 18:30~19:50
2. 장 소 : 세미나실Ⅱ(문화관 1층)
3. 연 사 : 남시욱(문화일보사 사장)
4. 주 제 : 한국 언론의 당면 과제

언 론 정 보 대 학 원 장

학술세미나 개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등의 외교·경제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 제 :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
2. 일 시 : 98. 5. 15일(금) 오후 2시~4시
3. 장 소 :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
4. 주 최 : 아시아지역학부
5. 주제 발표자

국 가 명	발표자 성명	직 책
싱가포르	Mr. Mark Low	First Secretary
말레이시아	Mr. PHANG Yew Fook	Investment
인도네시아	Mr. Hidayat Karta Hadimadja	Counsellor
태 국	Mr. Somsakdi Suriyawongse	Minister

구 안기부 개혁 방향 시사논단

국내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반드시 차단해야

수사권 폐지 · 국내외 정보기능분리 … 선진정보기관으로 가는 지름길

장 주 영
변호사

새정부 들어 안기부의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고 국내정치 개입부서를 통폐합하며 관련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고 한다. 안기부는 정치공작과 사찰 등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인권유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수사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안기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아 새정부의 안기부개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밝혀진 북풍공작사건은 김영삼정부초기 시도되었던 개혁작업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정치공작을 자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안기부에 대한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안기부의 개혁은 순수정보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비밀리에 움직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을 행사해온 안기부에 대해서 수사권의 남용과 인권유린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선거때만되면 간첩사건을 터트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받아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황장엽리스트 관련 정치인 수사설, 오익제 편지사건 등이 터져나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정보수집기능은 위축되고 순수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전문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맡겨야 한다. 96년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은 김영삼정부 초기 폐지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관련처벌조항)와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시켰는데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기부원들의 직권남용과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안기부원들이 형사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었다. 안기부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통제를 가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안기부자체의 안기부원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안기부의 정보수집기능도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정보는 물론이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해외경제정보의 수집이 매우 긴요하므로 손쉬운 국내정보수집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로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1차장(해외·대북)과 2차장(국내)체제로 나누어 정보수집기능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의 기능분리만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거와 다름없이 국내외정보수집기능이 통합되어 결국 국내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적으로 기능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이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권의 이해나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시 안기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정부 초기에 시도되었던 안기부의 개혁이 정권말기에 날치기 입법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기부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는 물론 정보기관 스스로의 올바른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노동절

검·경의 강경 진압방식, 충돌 격화될 듯

노동절은 매년 5월1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연대의 날이다. 또한 그 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절을 제정한지 벌써 1백여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노동절은 평화로운 기념일로 자켜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지켜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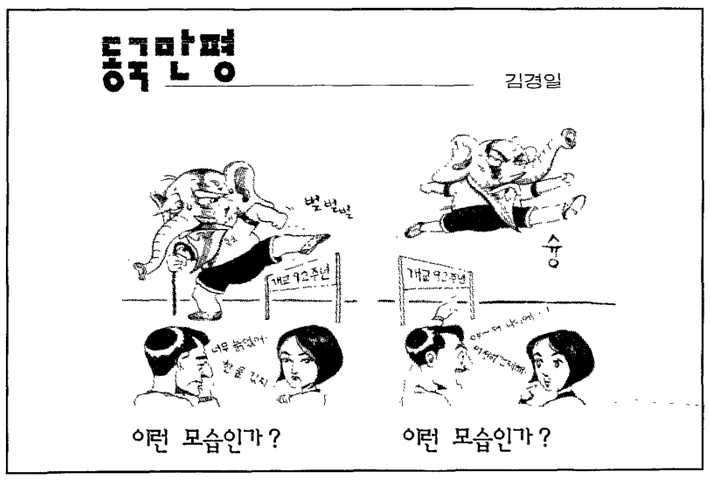
지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갑용)은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지만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절의 의미가 얼룩졌다. 실업과 해고문제의 심각성때문인지 이번 집회는 그 의미가 축제의 장이라기 보다는 생존권을 확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약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1부 본대회 폐막선언과 함께 종묘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준비하던 참가자들이 대오를 정비하는 순간, 전경이 최루탄을 난사하자 종로 한복판에서 두 시간 가량 대치하며 투석전이 벌어졌다. 한편, 충무로로 대오가 이동해 대한극장 앞에서도 노동자·학생과 경찰이 대치하며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했다.

17명(노동자6명, 학생11명)이 연행되고 23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1백26개 중대 1만5천여명의 병력을 동원, 종로일대를 원천 봉쇄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과잉진압이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평화적인 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행사 도중에도 4중-5중으로 경찰병력을 배치시키고 페퍼포그 차량 7대를 동원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 또한, 언론은 노동절 투쟁이 마치 한총련 주도의 폭력투쟁인 것처럼 보도해 사실을 왜곡했다. 물론 예비실업자인 대학생이 생존권과 직결된 노동자, 실업자 등과 함께 참가했지만 "평화적인 노동자 집회였는데 노학연대를 통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불법폭력 시위 국제신인도에 악영향 우려'라는 언론의 보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외 신인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의 잣대에만 비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업자가 날마다 늘어 가는데, 외국의 투자가 이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민중들의 생활'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노동자 5월 총파업 투쟁, 한총련 대의원대회, 한총련 출범식 등 굵직한 집회에 대해 노동절집회를 계기로 강경한 진압방식을 펼친다니 학생, 노동자 그리고 경찰들과의 대치국면이 계속될 게 불보듯 뻔하다. 검찰은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불법 폭력 시위를 명백하게 분리해 한총련 등 불법 단체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폭력시위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해산 위주에서 검거 위주의 진압방식으로 전환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제2의 충돌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인택 기자



사설

새 시대를 여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개교기념일을 맞았다. 이번 92주년 개교기념일은 매번 느끼는 바와는 분명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영광과 좌절, 회한 그리고 가슴 벅찬 감격…. 우리 동국의 지난 한세기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2년 남짓 남은 21세기는 분명 이전 세기와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우리 동국에게 예감케 한다.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제는 어느 대학이 망하고 흥하느냐 하는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 어느 나라, 아니 전체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장미빛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불허한다.

이러한 세기말적인 혼돈은 금세기초 이 대학을 세웠던 우리 선각자들을 생각케 한다. 그들은 쓰러져가던 나라와 절망에 빠져있던 세계인류를 보듬어 안으려는 웅혼한 기상으로 이 학교를 세웠다.

우리는 새롭게 창학한다는 신념으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기공식을 앞둔 불교종합병원도, 제3의 캠퍼스도, 교육개혁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닌, 남들이 안하고 못하니 우리가 앞장서 한다는 선구자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물론 선구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겸허하지만 당당한 수행승의 자세로써 우리 스스로 그 고독을 감내하자.

가야할 방향이 결정되면, 힘을 하나로 모아 더 이상 주저하지도, 당황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수천, 수만 마리의 코끼리 무리처럼 도도하게 달려가자. 새로운 세기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말이다.

학자추 분리 재고하자

경주캠의 학생회칙이 대폭적으로 수정됐다. 지난 6일 총대의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17개 조항의 개정과 1개안의 제정 등 지난 85년에 회칙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회칙개정의 의미는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나는 지난 감사와 선거에서 학생회칙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적지않은 소모전과 마찰을 빚었던 시행착오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학생회칙 개정여부가 현실화됨으로써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의 자치기구 승격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총학 산하기구인 학자추의 승격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금까지 매년 총학선거를 치르면서 이른바 계열이나 사상이 다른 총학이 들어설 경우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계열이 다른 총학이 당선된 경우 순조롭게 인수인계 되어야 할 관련자료와 문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했다. 그런 경우는 단대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야할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들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추를 총학에서 분리하여 계파와 정파에 상관없이 사업의 지속성을 꾀한다는 취지는 백번 납득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회칙에서의 학자추 승격이란 형식상의 명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사업의 성격을 격하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학자추가 총학과 분리되면 사업의 연계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간의 원활한 공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대와 관련된 협의과정 속에서 학생복지위원회와 중운위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작용해 문제해결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총학차원에서 힘을 모아 추진해도 어려운 학자추 사업을 자치기구 사업으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학생회는 이 시점에서 소탐대실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참사람 열린교육, 변화하는 대학

"19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 (야간) ☎ 260-3097~8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통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 통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통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4(목) ~ 6. 12(금)09 3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18(목) 14 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90주년 기념학술관 2층)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하며 해외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

불 교 지 도 자 과 정

가.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형일시 및 방법 1998. 6. 19(화) 14 00 서류전형 및 면접

● 행정대학원 (야간) ☎ 260-3102~3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행 정 학 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광행정, 언론홍보, 환경행정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안보정책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민간경비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북 한 학 과	북한체제, 북한행정, 북한사회, 통일정책
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5. 25(월) ~ 6 3(수)10 0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1998. 6 13(토) 14 00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우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

최 고 관 리 자 과 정

1. 지원자격
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경찰 및 소방 간부
나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다. 정부 투자기관, 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라. 사회지도급 인사 및 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 과정과 동일함.
3. 전형일시 및 방법 1998. 6.13(토) 13 00, 서류심사 및 면접

● 경영대학원 (야간) ☎ 260-3106~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경영, 마아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전공
나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회계 전공
다 경제학과 관리경제 전공
라. 무역학과 통상·무역이론, 무역실무 경영 전공
마.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 전공
바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사. 선물·금융공학과 선물·옵션거래 전공
아.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유통서비스, 광고관리 전공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5 26(화) ~ 6. 4(목)
4. 전형일시
1998. 6. 13(토) 14 00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및 특별우대전형
1) 공무원, 공인회계사,교직원, 군인 및 조계종 재적 승려, 본 대학원 부부 재학생중 1인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함
2) 5년이상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자, 기업체·사회단체의 중견 간부, 고위 공직자, 사법 행정 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해 특별우대 전형함

최 고 경 영 자 과 정

1. 지원자격
가. 기업체의 대표 및 간부
나.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다. 군고급장교
라. 노조간부
마 정부 각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5 26(화) ~ 6. 4(목) 본 대학원 교학부
3. 전형일시 및 방법
1998. 6. 13(토) 10 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전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직원, 군인, 조계종 재적승려, 본 대학원 부부재학생 중 1인등에 대하여 수업료 감면 혜택부여

● 교육대학원 (야간) ☎ 260-3109~10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분 야
교 육 학 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전공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 전공

●표시는 경주 캠퍼스 수강 가능
3.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처
1998. 5 . 25 (월) ~ 6 . 5 (금)10 00~17 00(토,일요일은 제외)
접수처 교육대학원 교학부, 경주캠퍼스 지원자는 경주 이부대학 교학과 (0561)770-2359
4. 전형일시
1998. 6 . 13 (토) 14 00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시험
6. 특전 및 우대전형
1) 본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에 의하여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초계중 재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의 30%)
2) 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 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정시 가산점 부여함

●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편입생) (야간) ☎ 260-3722~3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관리자과정
2. 모집전공

정보관리전공	신문방송전공	출판잡지전공	광고홍보전공	정보통신전공

3.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신 입 생	편 입 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8년 8월 졸업 예정자	타 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나 연구과정 석사과정 신입생과 동일
다 관리자 과정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 근무자, 개인사업자 또는 전공관련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자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5 25(월) ~ 6 3(수)17 00 (토, 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5. 전형일시
1998. 6. 13(토) 14 00(관리자 과정은 13 00)
6.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7. 특전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하며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야간) ☎ 260-3602~3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연 구 분 야
산 업 과학과	건설공학	토목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계획 , 도시공학 , 방재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 기계설계 , 자동차 공학
	산업경영	산업공학, 경영과학, 정보시스템 인간공학, 산업안전관리 , 기술경영
	식품공학	식품생화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공학 및 기능학 식품위생 및 안전성, 식품생물공학
	전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통신 , 제어계측 , 반도체공학
	컴퓨터 공학	컴퓨터시스템 , 시스템소프트웨어 , 분산처리 , 멀티미디어
	화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 재료, 고분자, 생물화공학
		응용화학

산 업 과학과	생명자원과학	식물자원, 산림자원
		응용생물
환 경 과학과	환경공학	수질 , 대기 , 해양 , 폐기물 처리 , 교통
	환경관리	환경계획 , 환경정책 , 환경경제 , 환경정보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1(월) ~ 6. 10(수)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13(토) 14 00 본 대학원 (90주년 기념학술관 3층 K213강의실)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하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전임교직원에게는 매학기 장학금 지급.

최 고 산 업 경 영 자 과 정

1. 지원자격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위 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학력제한없음).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장소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 260-3606~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문 예 창 작 학 과	문 예 창 작
연 극 영 화 학 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 경 예 술 학 과	환 경 예 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 1(월) ~ 6 . 12(금)10 00~17 00 (토, 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 20(토) 10 00 본 대학원 (학술문화관 K동 3층)
5 전형방법
가.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있으며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문 화 예 술 지 도 자 과 정

1. 모집분야 .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2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 · 문학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 · 조경 등의 유관기관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4. 특전 석사과정과 동일

●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 (02)260-3732~3

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국 제 해 양 정 책 학 과	국 제 해 양 정 책 전 공
정 보 보 호 학 과	정 보 보 호 전 공
국 제 관 계 학 과	국제협상 · 통상전공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5(금)~6 17(수) (동국관 L동 2층)
4 전형일시 1998 6 . 20(토)14 00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공무원(군 · 경 포함), 정부출연기관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지역개발대학원 (경주 · 야간) ☎ (0561)770-2093~4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모집과정	학 과	전 공
석사 및 연구과정	행 정	개발행정, 지방자치, 환경복지
	경 제	지역경제, 산업경영, 관광경영, 경영정보
	지 역 정 책	국제관계, 법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6 8(월) ~ 6 17(수) 17 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8 6 20(토) 14 00 본 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가.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에서 우대
나. 공무원, 교직원, 군장교, 조계종 재적승려 등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수업료의 30%)을 지급
다. 공무원 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장학특전

최 고 관 리 자 과 정

1. 지원자격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공무원, 군장교,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사회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서울 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260-3114 FAX (02)260-3692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경주 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TEL (0651)770-2114 FAX (0651)770-2002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합니다

봄농활

총학생회 주관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봄철농민학생연대활동'을 지면에 정리한다. 편집자

'참여의 농활'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농민학생연대활동

"농민과 함께 땀흘려 봅시다"

본교생 제천일대에서 농활 … 참여부족 아쉬움으로 남아

아침 6시, 어김없이 농활대장의 기상 소리가 들린다. 이어 7시면 일터로 향해 시작되는 근로활동. 그리고 저녁 7시가 돼서야 숙소로 귀가. 저녁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계속되는 분반활동과 하루를 마감하는 정리모임.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주관으로 실시됐던 '봄철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봄농활)'의 하루 일정이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봄농활에는 문과대, 경상대, 생자대, 공과대, 사범대, 야간강좌 등 6개 단과대 재학생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채소모종심기, 풀베기와 소똥 치우기, 잡초제거작업 등을 하며 농민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일제치하였던 지난 1928년 신간회가 일제와 지주의 억압에 맞서 일어났던 갑산 화전민 투쟁에 청년·학생을 파견했던 것으로부터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의 브나로드운동과 전후의 계몽활동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구조적인 농촌의 문제와 모순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1960년대와 70년대의 향토개척단 활동과 팀 단위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그 모습을 확립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이어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결성되면서 농활은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농민을 이해하고 현사회의 문제들을 공유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자리 매김되어왔다.

이와 관련 이미성(국교4) 부총학생회장은 "IMF로 더욱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연대활동을 하고자 이번 봄농활을 준비하게 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봄, 여름, 가을 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실시되는 농활은 직접 논밭으로 가서 일하는 근로 활동이외에도 현지의 농민들과 같이 하는 분반활동이 함께 병행된다. 아동반, 청소년반, 청년반, 장년반, 여성농민반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분반활동에서는 학생과 농민간에 허물없는 대화가 오간다. 이번 봄농활에 참가했던 경상대의 한 학생은 "단순한 근로활동보다는 분반활동을 통해 농민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생활 중 하나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농활.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규칙적이고 엄격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농활에 참가한다는 문과대한 학생의 말이 아니더라도 농민과 함께 땀흘리며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대학시절의 또 다른 영광일 것이다.

유철주 기자

취재낙수

농활과 학부제사이

○…농활에도 학부제를 도입합시다!!!

사범대 농활장소였던 제천시 봉양읍 공전3리. 근로활동이 끝나고 분반활동을 할 때면 어김없이(?) 청년반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고.

이유를 알아본 즉, 푸짐한 막걸리와 각종 고기 반찬이 청년반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서라는데.

이에 다른 반에서 열심히 분반활동을 하던 한 학생은 사기가 떨어진다며 한마디 "분반활동에는 왜 전과나 복수전공이 없냐고요!!!"

소똥

○…소똥이여 영원하라?

농활 3일째인 지난 4일, 경상대 학생들은 모두 소똥을 치우기 위해 목장으로 출발.

이 자리에는 마침 부총학생회장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자리를 했었는데.

먼저 일을 시작한 학생들은 위험지역(?)을 미리 알고 자리를 피했으나 미처 알지 못한 부총학생회장은 그만 소똥더미에 발을 담그고 말았다고.

이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 한마디 "무늬만 소똥 아니에요!!"

폭소

○…농활에는 술을 잘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할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이에 부합이라도 하듯 경상대의 모 학과 학생회장은 쉴새 없이 웃음을 줘 동료학생뿐만 아니라 현지의 아줌마, 아저씨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는데.

이 학생의 유머에 근로활동시간은 그야말로 폭소의 바다를 이루었다고.

이에 일을 함께 하던 한 학생 한마디 "지금 여러분은 체험! 폭소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농민 인터뷰

"학생들의 농활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범대학생회(회장=이선진·수교4)가 농활을 실시했던 제천시 봉양읍 공전3리에서 칠순의 부모님, 부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황해문(32)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여러가지 직업 중에서 농업을 선택하게된 동기는.

=내가 자란 곳이 이곳이어서인지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농고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택시운전도 해봤지만 역시 내 삶의 터전은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귀농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농활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난 96년도부터 우리마을에 학생들이 들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은 학생들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었는데 갈수록 열기가 식는 것 같아 아쉽다.

-현시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농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텐데.

=맞는 말이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80%까지 농자재값이 올랐다. 이와같이 자재값은 계속오르는데 반해 농산품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농가부채문제, 국민연금문제 등도 심각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민중에 부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정부는 농가부채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섭섭하다. 국민연금문제도 현재의 강제적인 집행보다는 자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과거의 선배들처럼 자기확신에 따라 활기차고 부지런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새내기 인터뷰

"여름농활에도 꼭 올거예요"

이번 봄농활에 참가한 김은선(수교1)양을 만나 농활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느낀점을 들어보았다.

-농활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농활은 고등학교 때 TV를 통해서 본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 정말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 봄농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농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다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농촌학생연대활동이라고 알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농촌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연대활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TV에서 보던 모습과 직접 와서 해보는 것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다.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도 많이 해야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을 만나 선입관을 바꿀 수 있었다. 이곳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봄농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진행되는 여름농활, 가을농활에는 참가할 것인지.

=정말로 3박4일의 농활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여름농활이 힘들다고 들었지만 친구들과 꼭 함께 참여하고 싶다.

제4기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제 4기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제 3기 1996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제 4 기 금액		과 목	제 3 기 금액	
자 산			자 산		
Ⅰ 유동자산		1,288,676,930	Ⅰ 유동자산		879,708,127
1 당좌자산		864,948,808	1 당좌자산		532,148,619
1) 현금	9,110,520		1) 현금	14,542,620	
2) 보통예금	836,991,634		2) 보통예금	497,023,387	
3) 회상매출금	4,512,730		3) 회상미출금	17,296,660	
4) 단기대여금	300,000		4) 단기대여금	826,060	
5) 미수금	13,737,340		5) 미수금	-	
6) 미수수익	496,584		6) 미수수익	2,459,272	
2 재고자산		393,989,948	2 재고자산		
1) 상품	393,989,948		1) 상품	346,221,108	346,221,108
3 기타유동자산		29,738,174	3 기타유동자산		
1) 선급금	29,738,174		1) 선급금	357,500	1,338,400
2) 선급비용	-		2) 선급비용	980,900	
Ⅱ 고정자산		280,861,645	Ⅱ 고정자산		236,676,354
1 투자자산		122,643,886	1 투자자산		91,531,926
1) 장기성예금	102,843,886		1) 장기성예금	64,320,646	
2) 전화가입권	450,000		2) 전화가입권	450,000	
3) 임차보증금	350,000		3) 임차보증금	-	
4) 계약보증금	18,800,000		4) 계약보증금	19,320,000	
5) 적립대여금	-		5) 적립대여금	7,441,280	
2 유형자산		158,207,759	2 유형자산		145,344,428
1) 집기비품	322,776,700		1) 집기비품	267,658,500	
2) 감가상각충당금	(179,717,030)		2) 감가상각충당금	(133,828,295)	
3) 차량운반구	26,790,890		3) 차량운반구	17,946,240	
4) 감기상각충당금	(11,642,781)		4) 감가상각충당금	(6,432,017)	
[자산총계]		1,569,528,575	[자산총계]		1,116,584,481
부 채			부 채		
Ⅰ 유동부채		437,691,546	Ⅰ 유동부채		407,585,225
1 단기차입금	103,765,570		1 단기차입금	103,265,570	
2 미지급비용	10,057,089		2 미지급비용	11,638,959	
3 회상매입금	323,320,810		3 회상미입금	292,680,696	
4 미지급금	358,240		4 미지급금	-	
5 선수금	219,837		5 선수금	-	
Ⅱ 고정부채		187,486,855	Ⅱ 고정부채		262,503,050
1 부채성충당금	187,486,855		1 부채성충당금	262,503,050	
2) 퇴직금여충당금	187,486,855		2) 퇴직금여충당금	116,403,050	
2 임대보증금	-		2 임대보증금	146,100,000	
[부채총계]		625,178,401	[부채총계]		670,088,275
자 본			자 본		
Ⅰ 자본금		327,464,543	1 자본금		198,913,388
1 자본금	188,634,543		1 자본금	198,913,388	
2 추가금	138,830,000		2 출자금	-	
Ⅱ 이익잉여금		616,885,631	Ⅱ 이익잉여금		247,582,818
1 당기말미처분잉여금	616,885,631		1 당기말미처분잉여금	247,582,818	
1) 수정후전기이월이익	257,861,653		1) 수정후전기이월이익	(200,976,490)	
2) 전기손익수정손실	145,000,000		2) 전기손익수정손실	-	
3) 전기손익수정이익	441,655		3) 전기손익수정이익		
4) 당기순이익	503,582,303		4) 당기순이익	448,559,308	
[자본총계]		944,350,174	[자본총계]		446,496,206
부채와 자본총계		1,569,528,575	부채와 자본총계		1,116,584,481

상기와 같이 공고함.

1998년 3월 12일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 진 철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4기 및 제3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 종 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명단

◇ 30년 근속

△ 김창호 △ 조병찬 △ 이민섭
△ 문명대 △ 최규철 △ 조영록
△ 김진철 △ 유광진 △ 이해풍
△ 조재호

◇ 20년 근속

교원 - △ 송석구 △ 백경남 △ 정용길 △ 박근호 △ 황용호 △ 김상규 △ 엄기현 △ 김주환 △ 오홍석 △ 김영길

직원 - △ 손상길 △ 이강현 △ 김준호 △ 황래열 △ 박환오 △ 황우열 △ 남 준 △ 이철교 △ 김영인 △ 이명호 △ 이병길 △ 추연학 △ 조백동 △ 엄기문

◇ 10년 근속

교원 - △ 서성원 △ 이지수 △ 한태식 △ 박종훈 △ 김홍범 △ 홍승기 △ 오정수 △ 신재호 △ 이성철 △ 전영일 △ 박정극 △ 고진호 △ 윤병식 △ 최창식 △ 배의용 △ 이한구 △ 이점원 △ 변정용 △ 엄기섭 △ 임배근 △ 강병수

직원 - △ 정경훈 △ 박군서 △ 이창학 △ 김영진 △ 장 운 △ 김청옥 △ 박종권 △ 허광도 △ 신기훈 △ 박만규 △ 이경식 △ 윤영식 △ 김근묵 △ 권혁배 △ 김태식 △ 손덕승 △ 윤주영 △ 김종규 △ 김한경 △ 류인수 △ 김경호 △ 오강희 △ 정영민 △ 최용근 △ 정순모 △ 박인향 △ 정옥자 △ 김미경 △ 이정숙 △ 박현태 △ 조정복 △ 안미숙 △ 김옥련 △ 권명순 △ 이경애

● 개교기념 공로상 수상자

◇ 공로상 1급

△ 윤동규 △ 김혁배 △ 손덕승 △ 김경호 △ 김경원 △ 차동섭 △ 김창식

◇ 공로상 2급

△ 박창근 △ 권혁자 △ 박선자 △ 우영미

◇ 단체 공로상(경주캠 대학종합평가 연구위원회 행정실무팀)

△ 이병천 △ 조원생 △ 이진형 △ 이철우 △ 김차일 △ 김영수 △ 신익종 △ 박승필 △ 김성규 △ 권영섭

'98 대동제

전동악인이 크게 뭉치는 자리, 대동제가 오는 13일부터 3일동안 '대학문화 자리 찾기-모자이크 만들기'라는 기조로 열린다. 다양한 개성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98 대동제를 살펴보았다.

'크게 하나된다' 이곳 동악에서

참여·화합으로 대동의 장 이뤄야

"젊은이여 도서관에서 나오라, 강의실에서 일상에서 뛰쳐 나오라. 일체의 생산을 위한 활동은 용납치 않는다"

디오니소스가 결코 술주정은 아닌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부터 1주일은 디오니소스의 시간이다"

동대신문 738호(1979년 5월 8일자)에 실린 '가상축제-개교 1백주년 축제는 이렇게'라는 기사의 도입부분이다. 이른바 '축제선언'의 내용이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선언으로 막이오른 '동국축전'이야말로 전 민족이 함께하는 겨레의 축제가 되리라"

79년 가상축제를 쓴 기자는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005년은 민족통일의 원년이 되리라 상상했다.

이로써 위대한 동국의 축전은 전국토의 축제가 되고 전국민이 하나되는 잔치가 된다. 폐막제에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통일자축 봉화를 전국에 지피는 통일제가 치러진다.

모닥불이 사그러들 때 동국의 한사람 한사람, 겨레의 한사람 한사람이 탈을 벗어 모닥불 위에 쌓는다. 날름거리는 불의 혓바닥 속, 불의가 타고 부정이 타고 불신이 화형에 처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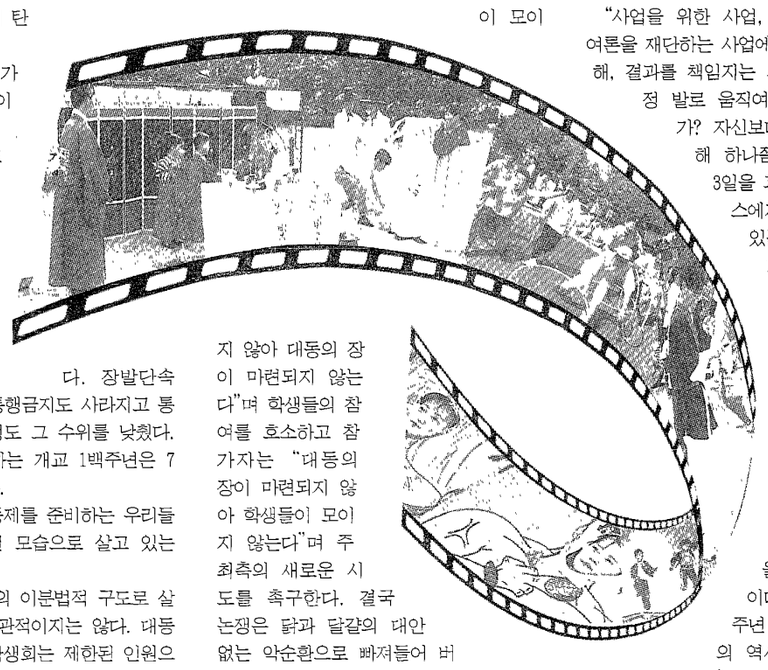
"새로운 등악인의 탄생이다"

이 가상의 기사가 쓰여지고 꼭 20년이 지났다.

2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군부독재는 '문민'과 수평적 정권교체로, 대학의 축전은 대동제로, 학도호국단은 총학생회로 바뀌었다. 장발단속도 통행금지도 사라지고 통제와 억압은 일정정도 그 수위를 낮췄다. 한편 기사가 예견하는 개교 1백주년은 7년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가 아닌 대동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최자와 참가자의 이분법적 구도로 살펴볼 때 양쪽다 낙관적이지는 않다. 대동제를 준비하는 총학생회는 제한된 인원으로 중앙집중된 과다한 행사를 치러내기에만 급급해 대동정신 구현까지는 갈길이 멀고 참여자인 학생들은 제도권문화에 중독된 나머지 저항을 기치로한 행사에는 레드콤플렉스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대동의 장에서 일탈해 가고 있다.



주최측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대동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참가자는 "대동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주최측의 새로운 시도를 촉구한다. 결국 논쟁은 닭과 달걀의 대안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79년의 가상기사의 반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통일은 관념이 되었으며 열린 참가는 실천없는 공허로 남아 버렸다. 사회적 자유 획득은 실현됐으나 크게 하나되는 대동정신의 구현은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사업을 위한 사업, 주관적 의도로 여론을 재단하는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결과를 책임지는 사업을 위해 진정 발로 움직여 본 적이 있는가? 자신보다는 모두를 위해 하나쯤 포기할 준비, 3일을 과감히 디오니소스에게 주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올 디오니소스의 '대동제선언'은 질문형식이었으면 한다. 자문으로 시작한 개막식, 해답을 찾는 폐막식 그리고 앞으로 7년을 계획하는 것이다. '동국의 1백주년 역사와 한민족의 역사를 빛내기 위해'라는 아주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며 말이다.

최진 기자

다른 학교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둘째날에 '현수막 걸기대회'가 있다. 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과나 학부는 팀을 구성해 참가하면 된다. 현수막에다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말솜씨로 구구절절(?)하게 쓰면 완성. 다 쓴 현수막은 학교내에 '서로 걸기'를 해 심사를 받는다.

상품으로는 과에 대한 지원이 팍팍(?) 있다고.

고려대

대학축제기간에 웬(?)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날에 맞추어서 인근지역과 철거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마냥 좋아했다고. 재학생들은 1일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지도했다. 등수는 가리지 않고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문구류를 선물로 주었다.

연세대

자율과 공존을 향한 한판 어우러짐이라는 기조아래 13, 14일 양일에 걸쳐 '장애학우 한마당'이 펼쳐진다. 장애인권 등아리인 게르니카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마라톤이 주를 이룬다. 휠체어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몸소 겪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데. 상품 역시 푸짐.

홍익대

역시라는 말이 나온다. 신촌에 있는 홍익대에서는 언더락팀을 초청해 '교육환경'이라는 주제로 정문 주차장에서 19일날 락페스티발 전야제를 한다. 허벅지 밴드와 어어부 밴드 등 6개팀 공연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자유로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 더불어 22일날에는 학생, 주민등이 모여 교육환경 보전을 위한 걷기대회도 있다. 코스는 신촌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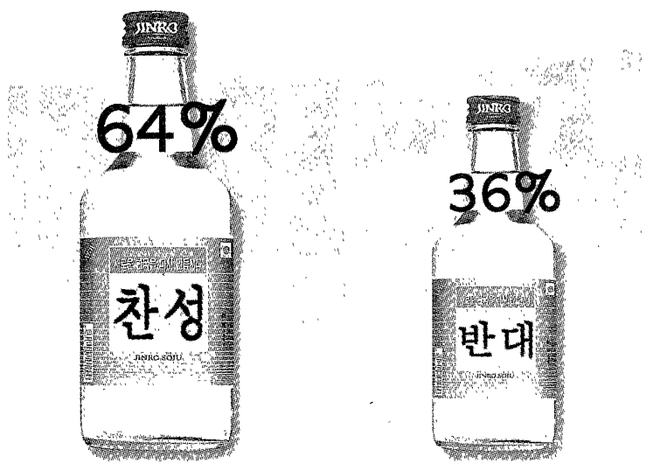
한양대

13일날에 '전통혼례한마당'이 거행된다. 물론 남녀한쌍이 신청해야 하는데 단, 결혼을 약속한 사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둘 중에 한명은 한양대 학생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 이날 예비 결혼식을 하게 되는 쌍은 연인사이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은 없을걸?

박영실 기자

그림뉴스

대동제주점 찬반



총학 사무국장을 만나

"올바른 대학문화 정립할 터"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이하 총학) 사무국장 배근호(식자4)군을 만나 98대동제 행사에 관해 들어보았다.

-올해 대동제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지금의 대학문화는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학의 변화 흐름을 읽어내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동제의 기조이다. 부제 '모자이크 만들기'는 올바른 대학문화 정립에 있어 획일성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작년에 비해 행사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난 이유는.

=예년 대동제에는 각 단과대 및 중앙에서 비슷비슷한 행사를 많이 치르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이었다. 이번 대동제는 각 단위마다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고, 각 단위마다 특색있는 사업만을 치를 것이다. 그 결과 총학의 사업규모는 예년에 비해 방대하지만 모든행사를 총학이 주최하지 않고 각 단위와 연계해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의 개성과 취향에 꼭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다양하게 기획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동제를 만들고자 주력했다.

-올해 대동제에는 학술행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 야간강좌총학생회와 '청년강좌'를 함께 기획하기로 했는데 야간강좌 총학생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결렬됐다. 또한 새터 후속사업으로 실시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추진하지 못한 '새내기 독후감 응모'를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대동제 행사에 밀려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을 우려해 취소했다.

-대동제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몇몇 대학들은 이벤트회사에 대동제 행사전체를 맡기기도 하는 등 대동제가 점차 상업화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본교에서는 지난해 대동제때 화장품회사의 협찬으로 이벤트를 열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를 아예 갖지 않기로 했다. 다수의 의뢰가 있었지만 대동제만큼은 상업성과 맞물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행사준비에 임했다.

김미경 기자

단과대

단과대	행 사	날 짜	장 소
법과대	• 주점	13, 14일	동국관 앞
	• 가요제	14일 18시	동국관 앞
사과대	• 주점	13, 14일	동국관 앞
경상대	• 주점	13, 14, 15일	동국관 앞
사범대	• 주점	13, 14일	
	• '불휘' 공연	13일 14시	불상 앞
	• 열전달리는 예비 교사	14일 16시	
	• 예비 교사 한마당	15일	
예대	• 벼룩시장	13, 14, 15일	동국관 앞
	• 주점	13, 14, 15일	동국관 앞
야간강좌	• 통일노래한마당	11일 18시	만해광장
	• 우리것 찾기 문화 행사	15일	
	• 상설공연	14일 16시	불상앞
	• 한밤의 노래자랑	14일 18시	불상앞

동아리 연합회

동 아 리	행 사	날 짜	장 소
자연과학연구회		13~15일	명진관 앞
DUSSA	동국인 의식조사	13~15일	다향관 앞
HAM	폭스헌팅	13~15일	불상 앞
만화얼	전시회	13~15일	팔정도
문학회	시·소설전	13~15일	팔정도
AD-RUSH	거리전시회	13~14일	팔정도
그리고 … 그림	전시회	16~22일	연화원
검도부	시연	15일 13시	불상 앞
선무부	시연	13일 17시	불상 앞

대동동악장터

품 목

우 리 차 : 녹차, 유자차, 둥글레차, 대추차는 판매
매실차, 동규자차는 한번 마셔보기 및 판매
우 리 농 산 물 : 방울토마토, 배, 참외, 사과 등
우 리 옷 : 이쁜 꼬까 와서 보고 사세요.
우 리 떡 : 개떡, 무지개떡, 인절미, 백설기, 약식, 바람떡, 절편
우 리 음 식 : 일단 와서 한번 먹어보라니깐요
불 량 식 품 : 그 옛날 먹던 설탕뽑기, 뻥튀기 등등 …
엽 서 판 매 : 우리말, 우리그림 등을 즉석에서 판화로 찍어드립니다.
책 나 눠 쓰 기 : 각 학생회에 나뒹굴며 아우성치는 책들은 나눠씁시다.
헌혈증 기증 코너 : 헌혈증을 모아 학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구요.

대동동악장터에서는 우리놀이를 항상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0원~3,000원 사이!!!

일시 : 5월13일 ~ 15일 · 12시 ~ 17시
장소 : 중앙도서관 앞

30대 총학생회 산하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아흔두번째 개교기념일

1906년 5월8일 한국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교육구국의 기치로 명진학교를 설립한 지 이제 92주년이 되는 지금 '비젼 21C 동국'을 향한 몸부림이 한창이다. 기념식장에서 동악의 구성원들을 만나 그들의 '개교 92주년'을 들어보았고, 또한 1백주년기념사업의 계획을 알아보고자 송석구 총장을 만났다.

화합의 날개로 힘찬 비상을

7일 개교 92주년 기념식 … 1백주년기념사업 성취 기원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평가, 발전기금 3백52억 달성,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 추진 등. 참사람 열린교육의 이념아래 동국 1백주년을 향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는 개교 9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기념식이 열렸다. 삼귀의례와 국민의례에 이은 이법산 정각원장이 학교발전을 기원하는 발언문 봉독은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인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의 원만한 성취와 남북통일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가 인정되는 교직원들에게 표창장 및 공로상을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이어서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학위수여, 답사, 교가제창,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송석구 총장은 기념사에서 "경쟁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학은 변화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굳건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소명아래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실현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또한 오녹원 이사장은 "우리의 과오와 결함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자성하고 후세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삶의 자세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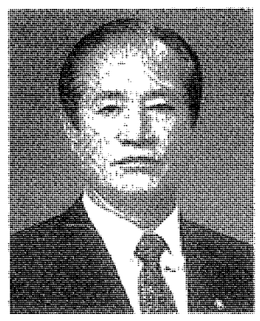
한편, 키르키즈 공화국의 소베트벡 톡토 미쉐프 교육과학 문화부 장관은 범세계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공로가 인정돼 이날 본교에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소베트벡 톡토 미쉐프 장관은 "세계 유수 대학 중 하나인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국립민족대학에 한국어 단대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학술 문화관 그릴에서 개교 92주년 기념 연회가 진행되었다.

박영실 기자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

교수·학생·직원·동문 행사장 에서 동국의 구성원들을 만나 개교 92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총동창 회장 황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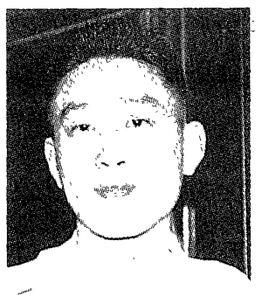
이미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개교기념식에 참석하는 감회는 격세지감일 수 밖에 없다. 나의 학창시절보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아졌고 그 질도 좋아졌다. 교수진의 연구활동도 활발하고 그 성과 또한 훌륭해져서 교수진의 실력이 향상됐음을 느낀다. 학생들은 보다 진지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배움에 임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앞으로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30년 근속상 수상 의료원장 조재호

모교를 위해 30년을 일한 것 뿐인데 수상을 하게 되서 송구스럽다.

개교 92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에 많은 발전이 있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건립중인 불교종합병원이 완공되면 학교의 위상이 높아질거라 기대된다.

그 위상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정보산업대학(컴응 4) 하원식

개교 92주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번 개교기념식에서 30년 근속 표창을 받은 교수·교직원분들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도 느끼게 되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보다 나태해진 몸과 마음을 반성하며 남은 대학생활을 보다 계획적이고 알차게 보내야겠다.

정보산업대학 컴퓨터 통신 공학부 엄기현 교수

매년 참석해온 개교 기념식이지만 해마다 그 느낌은 사뭇 다르다.

점점 발전해 가는 학교의 모습을 보노라면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느끼게 된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재직 기간동안 좀더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 성과를 쌓을 계획이고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싶다.

송석구 총장 인터뷰

"5년동안 추가재원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우려의 목소리에 감사 … 상황따라 규모조정 가능성도

개교 92주년이란 긴 역사속에 이제 본교는 21세기(개교 1백주년)를 준비하는 그 과정속에 있다. 또한 근래 몇 년간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 선정,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 건립계획 등을 비롯해 건학이념인 불교정신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부제 확대실시 등으로, 그리고 어려운 시대상황속에 추진되고 있는 불교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기념사업들에 대해 학내주체들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구(철학)총장을 만나 개교 92주년을 맞이하는 소감과 개교 1백주년을 준비하는 자세 및 기타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불교정신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창립된 본교가 이제 92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한 소견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함에 있어 그 비전이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대학은 그 역사에 비해 걸맞는 발전을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그래서 재임초기부터, 내적으로는 교육개혁을 통해 수요자(학생) 중심의 교육, 외적으로는 교세팽창과 학내시설확충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년연속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맞이했고 정부로부터 8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발전기금으로 3백52억원을 조성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놓았다. 이를 시발점으로 이미 과거부터 경쟁력이 확보된 인문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낙후돼 왔던 이공계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특성화하는데 집중투자 하고 있다. 불교종합병원, 제3캠퍼스 건립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후일 불교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더불어, 이공계분야에 집중적인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종립대학으로써 1차 특성분야인 '불교'를 비롯, 제3캠퍼스에 첨단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이공계 특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교수회는 '예산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실성 있는 비젼 제시' 등을 요구하는 등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기금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본교가 무리해서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3백52억원을 발전기금을 통해 조성한 바 있고, 여기에 재단의 전입금을 비롯 기타 수익기금을 합치면 병원건립에 소요되는 기초적인 재정은 확보하였다. 덧붙여 모자라는 재원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향후 5년동안 불자들의 모금을 통해 5백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학내주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 자체가 고맙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동국대학교'의 공동체의식을 함께 하고 강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 건립은 갑작스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총장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허락과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인 재정이 확보돼 있고, 군사보호지역 해제시 조건부로 8월까지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16일날 기공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향후 병원건립시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한·양방 8백베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상태를 보아 5백베드로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3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다. 제3캠퍼스 조성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가.

=제3캠퍼스에는 현재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 등의 이공계분야를 옮길 예정에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 허가이전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은 경기도로부터 시설결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공계의 부족한 실습실들과 기자재들을 지금 서울캠퍼스에 짓고 있는 정보매체센타등을 비롯한 시설확충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제3캠퍼스 조성을 하면서 차차 이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3캠퍼스 상은 첨단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동을 위주로 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학협동의 경우에 기업들과 연계를 해야 하는 특성때문에, 그 기간이 몇 년간 소요된다.

최정식 기자

전국 1,300여 가맹업소 할인서비스 혜택

'2만원으로 20만원을 번다(?)'-대학문화 멤버쉽카드

"대학가의 물가를 10% 낮추겠습니다"

●대학문화 Membership 카드의 회원이 되시면?

대학문화신문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쉽카드의 회원이 되시면 대학문화신문 연간 정기구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과 아울러 대학문화신문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문화 멤버쉽카드'는 이창희할인서비스의 제휴카드로서 전국 200여업종의 13,000여 할인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30~5%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는 전국 규모의 학원, 레저, 웨딩, 콘도, 호텔, 영화, 연극공연, 자동차구입, 이사택배등 분야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대학가 주변 커피숍, 당구장, 서점, 식당, 이·미용실, 의류점, 제과점, 주점등의 가맹업소 이용시 소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문화신문 멤버쉽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생년월일	
자택주소			
연 락 처	(전화) 호출		
소 속	( )대학교 ( ) 학과(계열) ( )년		
입금방법	( )은행		
기타사항			

위와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8년 월 일

성 명 서명

대학문화신문 멤버쉽 카드사업부 귀중

■ 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방법

전화로 신청 또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준해 작성,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하신 후 아래 구좌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입금 확인후 카드 및 가맹점 리스트를 송부합니다. (카드 발급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연간 가입비 - 20,000원

※회원가입비의 5%는 소년·소녀가장 장학사업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구좌 (예금주:대학문화신문)
국민은행 : 817-01-0250-863
제일은행 : 119-20-131197

●가맹점 확인 주소
인터넷 :http://www.leechanghee.co.kr
천리안 : GO LCHDCSVC

●가입문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층)
전화 02)3446-1668
팩스 02)3446-4874
대학문화신문사 회원카드 사업팀

쓰면 쓸수록 돈번다 - 대학문화 Membership카드,
대학가 소비문화의 조용한 혁명-대학문화 Membership 카드

대학문화 Membership 카드
발급기념 대 축제
가입회원 특전
5월 7일 - 6월7일까지 (당일까지 유효)

❶회원카드 발급 및 전국 가맹점 리스트 제공
❷대학문화신문 연간 정기구독(우편발송)

▶경품 1 SK텔레콤 최신기종 호출기(광역/일반) 1,000대 개통 무료 제공
(6월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가입회원 1,0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 단 가입후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이용금액은 통장 자동이체만 가능)

▶경품 2 로제화장품(7만원상당) 10명

▶경품 3 능률영어사 영어학습서 〈Listening KNOW - HOW, 이찬승 저〉 1권 100명

※경품 (2), (3)은 응모권 추첨을 통해 지급

할인서비스 가맹점

♣-공부서비스
(신규등록자만 가능)
●정철외국어학원 10%
●파워일영어학원 7%
●ETC 영어학원 10%
●강남이학원 10%
●글로벌교육문화원10%
●E4컴퓨터학원 10%
●동양컴퓨터 최고 27%
●태백컴퓨터학원 10%
●강남컴퓨터 교육센터 10%
●예일디자인 입학금 50%(면제)
●토바디자인/ 컴퓨터 5%
●도도분경학원 입학금 5%(면제)
●김상열계파 수강료의 2만원
●대학편입아카데미 10%

●한교 고시학원 10%
●뉴월드유학센터 10%
●한국유학개발원 20%
●네오도무이 아카데미 10%
●한국도무이 센터 10%
●서울모델 아카데미 15%
●서울간호학원 10%
●반도만화 영화학원 10%
●청수 시네텔에니스쿨 10%
●인포뱅퓨(인터넷) 10%
●스펙이스사진 입학금 5-7만원(면제)
●시각과 인식미술학원 5%
●잉글리쉬 솔루션 15%
●동아락데일학원 10%

♣-여행서비스
●아주관광 할인율 3-5%
●허 니 문 할인율 5%
●내일여행 할인율 3-7%

●H.I.S여행사 할인율 3-5%
●미광항공여행사 할인율 3%
●D 데포스 연회비 50%

♣-피자서비스
●도미노피자 최고50%

♣-자동차구입서비스
●자동차 구입시 최고 무대혜택

♣-자동차보험서비스
●자동차보험 최고 무대혜택

♣-헤밀리레스토랑서비스
●TGI쇼프트드링크 무료
●캐니로저스 사이드디쉬 무료

♣-놀자서비스
●힐탑호텔 아바론 10%

●노보텔 앰버서더 습탄 10%
●선사인호텔모터스 10%
●타워호텔 지.아이.지 10%
●코라온 호텔골드 10%
●해커스 10%
●Deep House 10%
●해바스트리트 안주서비스 (3만원 상당)
●이태원 호텔뱅크 10%
●보그 15%
●하나 20%
●투망카펜 10%
●리버사이드 호텔 10%
●뉴힐탑 매너클럽 10%
●뉴월드 호텔 ROKI 10%
●리버라호텔 5%
●경남관광호텔 10%
●노스텔자 10%
●파라다이스 20%
●카네기 20%

●뉴스타호텔 룩소 10%
●영동호텔 10%
●캐피탈호텔 10%
●풍전호텔 10%
●머리나 10%
●펜트하우스 10%
●세이에스 15%
●월드컵코리아 10%
●쥬리아나 10%
●메시코 10%
●이리랑 에어라인 15%
●파라오 15%
●비지니스 클럽조이 10%
●뉴욕빌 10%
●제우스 10%
●미미 5%
●프라하호텔 가라오께 바돈나 10%
●단코(DANCOH) 10%
●올드팜 호프 10%

●레방단관주점 10%
●마카베나 10%
●개관의 10%
●오렌지 20%
●도시의 등불 10%

♣-식당서비스
●한국관 10%
●생돼지 자갈구이 10%
●미스터철판 10%
●형제갈비 송료1명 서비스
●HOUSE OF BLUE 10%
●고가 5%
●MUSE(뮤즈) 10%
●레짱가든 10%
●가야 10%
●대원 10%
●금융 10%
●광동성 5%

●일주(일식) 10%
●어촌횟집 5%
●구진포 10%
●뉴 서한 5%
●다야방 5%
●커코신장 10%
●고향촌 5%
●바스타 파스타 10%
●올리불리 10%
●도쿄 홈 10%
●오후정 10%
●수미정 10%
●리베르 부페호프 5%
●가 야 10%
●빌라노바 10%
●TRAVERN VILE버빈스 빌 10%
●신 한국관 10%
●SB(에) 10%
※그외에 대형음식점만 100개 이상

♣-연극서비스
●강장술래소극장 최고 50%
⇒ 30개이상의 소극장 최고 50%

♣-각종 서비스
●고려골드박스 최고 20%
●렉서비스 최고 20%
●중합검진 최고 50%
●AVIS렌트카 최고 15%

●팅키벨 10%

♣-결혼정보서비스
●듀오 10%
●방배점혼연구원 10%

♣-웨딩서비스
●5.3웨딩 마트 10-15%
●성진웨딩마트 10%

서울(4000개) / 경기(3000개) / 인천(1200개) / 임산(200개) / 부산(800개) 광주·진해(1500개) / 마산·창원1500개 / 청주(373개) / 구미(200개) / 춘천(200개) / 원주(230개) 제천 / (216개) 단양(216개) / 순천(200개) / 이천(150개) / 장호원(150개) / 익산(150개) / 제주(300개) / 대전(200개) / 여수(300개) / 통영·거제(300개) / 동해·삼척(50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법안 명시화 절실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문화재 보존의 최선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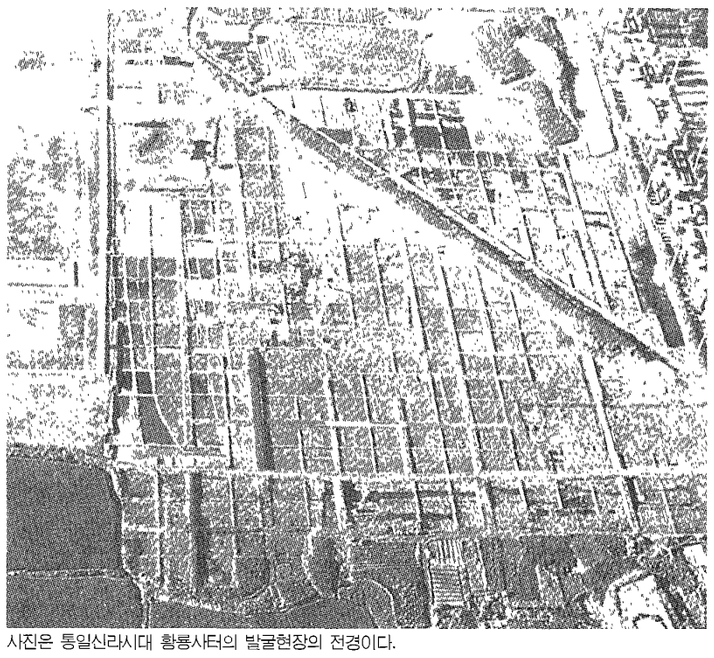
최근 학계와 문화계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짚어 보았다. 편집자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니 도시로서의 경주의 역사도 2000년이 훨씬 넘었다. 대한민국이 문화재로 지정한 총 6,848개의 유적물 중 1,271개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에 분포되어있어 경주의 역사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경주의 이러한 특성이 인정되어 1979년 유네스코의 전문가회의는 경주를 세계적 역사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도 경주의 이러한 역사·문화성을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등을 통하여 경주를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보존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화재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경주시의 건축허가 건수는 약 5,000건인데 반하여 유물 발굴 신청 건수는 50건을 밑돌고 있다. 이 통계는 경주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과 현행 보전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경실련, 경주발전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수 차례 중앙정부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결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지난 4월 18일 경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 단체가 힘을 합하여 개최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라 할 수 있다. 이 공청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문화재 보호장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6%('그저그렇다'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90.1%)를 차지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51%(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4.2% 였음)를 차지하였다.

특별법 제정의 방향은 한 마디로 경주를 '고도로서의 보존과 균형적 개발'에 입각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고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체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것이며 관광산업은 어떻게 진흥시키겠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원의 확보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위에서 수립한 계획이 공허한 장미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이 계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할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통일신라시대 황룡사터의 발굴현장의 전경이다.

이러한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의 규제일변적이고 희생 강요적인 문화재보존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문화재보존지역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득이 된다면 주민 모두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이다. 정부는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역할을 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경주시민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문화재 보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요구한다면 정부도 결국 이에 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각에서 볼 때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 여부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도 경주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부작정 예산을 빌미로 건설 반대만을 발표할 일이 아니다. 철도역사의 건립에 따른 신도시의 개발과 구도심의 문화적 시각에서의 보호를 연계한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포항과 울산이 공업도시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주를 부근 도시와의 비교우위론적 시각에서 문화역사도시에 더하여 교육도시로서 발전시킨다면 경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균형 잡힌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오영석 교수
법정대 행정학과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 가안 주요 조항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의 유산인 고도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존·복원하고 고도의 균형적 개발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를 보존하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에 우선한다. 단,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보존 및 복원사업의 경비) 고도의 보존과 복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한다. 단, 사업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일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매장문화재의 발굴)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전항의 매장문화재 발굴이라 함은 건축 등 각종 공사 시에 있어 사전 발굴 또는 공사 중 출토에 따른 발굴에 한 한다.

제11조(건축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한 한옥미관지구의 건축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발생한 초과경비는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한다.

제17조(고도보존·개발 기금)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도보존 및 개발기금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3. 국가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존·복원지구 안의 고유재산의 처분 재원
5.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한 각계 반응을 듣는다

시민-일방적인 발굴비 부담은 부당 시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중요

지난달 18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문화·관광의 도시라하면 단연 경주라 말 할 수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시대의 수도 경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유적지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면 한없이 아름답기만 한 경주가 이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유물이 매장된 땅에 딪고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경주시의 사람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이다.

그 한예로 경주시 황남동에 주택을 지으려고 발굴비를 개인이 부담하였는데도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이다. 개인이 유적 발굴비만을 부담한 억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명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피해를 줄이고, 최대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본교 경주캠과 경주대 교수들은 보고서의 주민피해 사례에서 정부와 경주시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체제의 심각성을 환기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보면 경주시청 문화과의 이준호 학예연구사는 "정부는 지금껏 경주를 문화적 도시로만 바라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정책방침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측은 정부의 법적 정책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할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가의 보조라 할수 있다. 특별법이 이 사항들을 포용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재 연구소의 이은석 학예연구사는 "근본 해결책은 국가의 보조이겠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문화재 관리국은 문화재 발굴지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며, 특별법도 대중에게 공평하고 유익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 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은 현 경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그로 인한 문화재 피해사례에 대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도보존 이란 법적사항에서 개발지원이란 사항을 덧붙여 현실성 있는 법안을 제시하려한다"는 오영석 교수의 말은 이번 법안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안해 보다 더 개선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문화재를 둘러싼 경주시민들의 고충은 끝나고 경주시민이 문화재를 진정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더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의 현실화를 더욱 시급히 계획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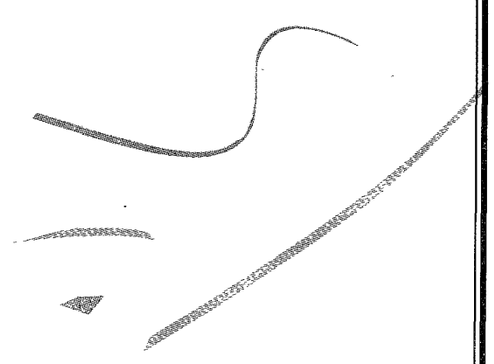
황성규 기자

생명존중 · 정도경영
중외제약

SPC 600만 병 돌파기념 사은대잔치

SPC가 발매 후 600만병 돌파로 다시 한 번 렌즈관리용품의 대명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세척만으로 단백질제거까지 동시에 말끔히 해결하는 중외SPC —
뜻있는 경품으로 푸짐한 사랑의 행운을 잡으세요.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 를 통해 임신 빈혈에 관한 건강정보(1번)와 콘택트렌즈 관리방법(2번), 콜레스테롤과 성인병(3번), 전립선비대증(4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치 1 ARS 퀴즈잔치
지금 전화를 걸어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IMF시대에 맞는 색다른 경품, 의미있는 행운을 드립니다.
하루 한 번 세척만으로 ○○○○○까지
동시에 말끔히 해결하는 중외 ○○○!

배움상 (3명) 분야도 자유, 과목도 자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비(30만원상당)를 제공합니다.
보람상 (5명) 6일간의 광고모니터 요원이나 홍보도우미 활동을 통해 사회 경험도 하고 용돈(30만원상당)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독서상(10명) 3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행운상(500명) 중외 PC크리너

ARS전 화 : (02)815-1999
응.모 기 간 : '98.4.25-5.24 (30일간)
당첨자 발표 : '98년 5월 30일 스포츠 신문

잔치 2 고객감사 선물잔치
행사기간중 중외제약의 렌즈관리용품인 SPC나 MPS를 구입하신 뒤, 라벨을 오려 관제엽서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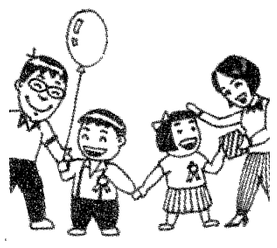
SPC상 (50명)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MPS상(100명) 헤어매니큐어
행운상(500명) SPC샘플

New SPC
행사기간중 SPC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쁜 팬시 필통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98.4.25-5.14 (20일간)
당첨자 발표 : '98년 5월 30일 스포츠 신문
보내실 곳 : 156-757서울특별시 남서울 우체국 사서함 96호 중외제약 광고팀
(02)840-6693-4

콘택트렌즈세척 및 단백질제거제— 행복, 소독, 보존, 윤활을 한꺼번에—
SPC 엠피에스 MULTYPURPOSE sol.
■권장소비자가격 : SPC(30ml)→6,600원, MPS(500ml)→6,600원

동악로



맑은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 경주 시민단체들 주최, 총학생회 후원으로 개최된 '제5회 어린이날 행사'로 인해 경주캠 녹야원은 새싹들로 가득하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7백여명의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은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웃음짓는다.

1차측 아이들이 중앙으로 모여들고 사회자가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놀이를 시작한다. 뒤이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저희들 따라해보세요"라며 춤추는 사람은 다름아닌 미래의 선생님이 될 대구교대 학생들.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어린이들을 위해 각종 행사 준비를 하고 있던 한 학생은 "아이들 얼굴을 보니 힘든줄 모르겠어요"라며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다.

"이번에는 경주내 다른 곳에서 행사하는 곳이 없어서 행사가 빛났으며 결손가정의 아이들도 초청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된 것 같다"고 조동흠 전교조 경주지회 지회장이 행사취지를 말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좋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 주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조금전처럼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한 흥겨운 자리임에도 고용불안, 대량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일까. 너무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내린 단비와 같은 행사였지만 다시올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서는 경제한파란 말조차 느낄수 없었다. 티없이 맑고 밝은 모습들뿐.

내년 어린이날 행사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황성규 기자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반목과 폭력으로 점철된 '축제'

고용안정·재벌개혁 위해 총파업 불사

계절의 여왕 5월은 최루탄의 자욱한 안개속에서 시작됐다. 정리해고, 임금삭감, 근로자 파견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학생 3만여명은 지난 1일 고용안정을 외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갑용 이하 민주노총)이 주최한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했다.

종묘공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회사와 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철폐 △악덕기업주 구속, 부당노동행위 척결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재벌 개혁 △IMF와의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1부 본대회는 집회 자체보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현상황을 알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때문인지 40여분만에 끝이 났다. 이후 명동까지 가두행진을 하기위해 대오를 정비하던 중 대학생 1백여명이 차도 중간으로 나오면서 경찰과의 무력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했고, 그 중 일부가 집회장인 종묘공원 내로 떨어지면서 시위는 격렬해 졌다. 경찰은 페퍼포그 차량 7대와 전경 1만5천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보도블럭을 깨뜨려 경찰을 향해 던지며 맞대응했다.

이후 시위대는 을지로 4가를 거쳐 충무로로 이동했으며 1만여명의 학생들은 본교 대운동장에서 정리집회를 가지고 해산했다. 한편 민주노총소속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이날 대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사진채증 등을 통해 파악된 폭력시위 가담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결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불법행동을 하거나 경영권을 간섭하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절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평화행진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격시위로 유도했다"며 "연행된 노동자와 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대응키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근로자 파견제와 정리해고제 철회 등에 대해 "이미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는 16일의 '98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전국동시다발 집회와 23일의 부문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5월말부터 6월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대철 기자

방북취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대학신문기자의 사명띠고 순수민간교류 차원 취재할 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김세규·경기대학보사 편집장 이하 전대기련)은 지난 7일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방북취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방북취재는 지난 2월1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전체 대표자회의(전국대학 신문사 편집장 회의)에서 오는 8월5일에서 15일까지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이다. 그 후 전대기련은 두 차례의 각 지부 지부장 회의를 거쳐 현재 26명의 공동기자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방북취재 추진위원회 실무대표 고주용 항공대학보 편집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대기련의 방북취재가 순수한 민간교류의 차원임을 밝히고 김대중 정부에 방북취재 허가를 요구했다. 이어 방북취재 추진위원회 실무대표 김정희 외대학보 편집장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및 이행과 방북취재 허가를 촉구하는 2천기자 선언문'을 통해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김대중 정부는 통일 공약에 따라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받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세규 전대기련 의장과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방북취재 추진에 앞서 북한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아직은 없다. 하지만 통일부로부터 승인허가를 받으면 지난 91년 판문점 학생회담 때와 같이 북한측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 각서와 초청장이 올것으로 기대한다.

-방북취재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아직 구체적 액수는 산출하지 못했다. 경비는 방북취재 공동기자들이 일부를 직접 부담하고 각 사회단체와 정부측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북한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식량난에 관한 취재 계획은.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목적인 학술·문화 교류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북한측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재할 용의가 있다.

-만약 이번 방북취재에 불허 판정이 나온다면.

=그러한 판정을 내린 기준과 이유를 듣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재접수는 물론 계속된 요구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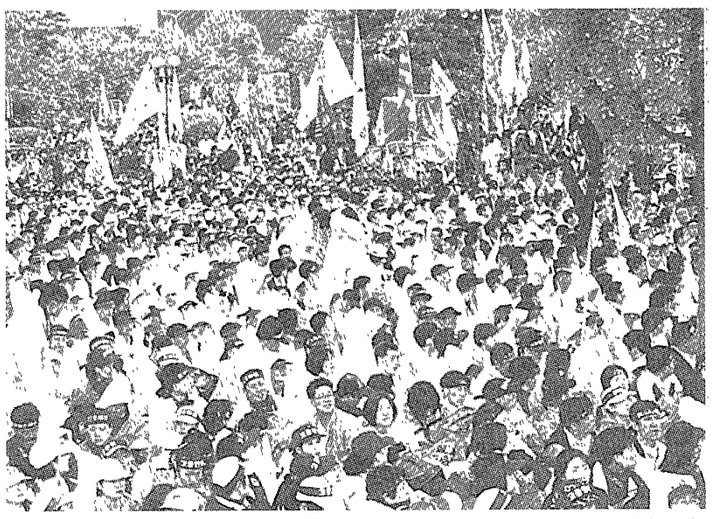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대기련 실무대표와 몇몇 기자들이 통일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방북취재 신청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통일부에서는 총장과 지도교수 추천서가 없고 사업계획서와 전대기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대기련은 "방북취재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며 합법적인 방북취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등의 통일 정책을 밝힌바 있다. 그 후 남북학술학자회의와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김순권 박사의 방북 허가, 성균관대 총장의 방북, 리틀엔젤스 예술단 방북,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농사용 소와 밀가루 등의 지원 허가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전대기련은 "대학신문기자로서의 사명을 띄고 북한의 대학 및 대학생의 생활, 학술을 중심으로 취재하겠다"며 "이러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통일 3대 원칙중 한 가지인 남북한 화해와 협력 구축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방북취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 앞서 재정확보, 방북취재 허가 등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남대철 기자

사진으로 본 노동절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3만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 빽빽이 앉아있으면 답답할만한데,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이다.

최루탄 가스를 참다못해 한 노동자가 소화전을 열었다. 이 물로 많은 노동자·학생의 매운 눈을 씻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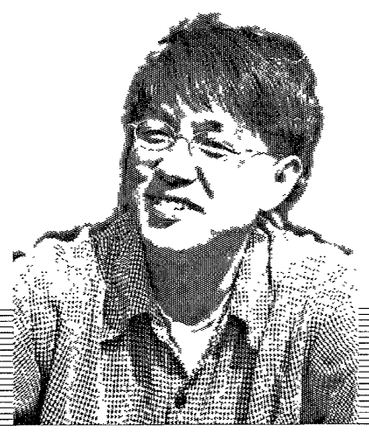
최루탄을 쏘는 전경과 돌을 던지는 노동자, 학생. 그들은 진정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가?

방북취재 성사를 위한 전대기련 공동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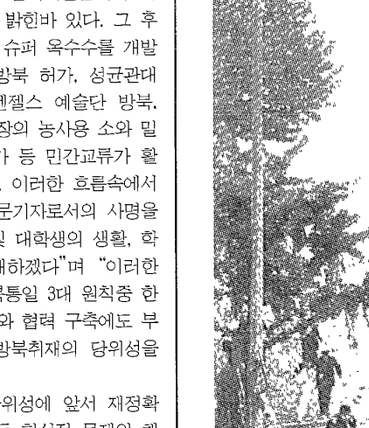
미군이 이땅을 지키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남북합의서가 이행되는,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죠"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의 발판이 될꺼야. 합의서대로 서로를 부력으로 침략안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왕래와 접촉이 자유롭게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통일은 앞당겨지는 거지. 그런데 아직 남한에서는 국회비준조차 되지 않았으니 걱정이구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법적·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야" 이장희교수〈한국외대 국제법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회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어렸을 때 미군을 보면 '헬로'하며 넘겼었는데 철들면서부터 우리땅에 왜 미군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죠. 그리고 미군기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쓰면서 쓰레기로 환경오염까지. 용산, 군산, 부산, 오산…, 그 크고 중요한 땅에 우리돈주고 미군을 있게 하다니. 우리나라 군사작전권도 미군에게 있다고 하니 말 다했죠.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이젠 미군은 이땅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진호〈H대 93학번〉



이지은〈O대 98학번〉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통일 못하지.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안된다고 봐. 그리고 맨날 우리가 민주주의하자 그러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니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어. 임금 인상해주라 해도,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해도, 파업을 해도 도통 빨갱이라고 하니 말이 안돼. 노동자가 통일의 '통'자만 꺼내도 빨갱이라니깐. 이젠 이런 법은 통일을 위해서도, 노동자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해"

98년 4·19 전진대회에서 만난 한 노동자

방북취재 성사! 민간통일운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합의서 이행!

새날을여는민족자주언론의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달하나 천강에

여분의 문제

김 주 환
자연대
전산통계학과 교수

못 하나가 없어서 말발굽을 잃었고, 말발굽이 없어서 말을 잃었고, 말이 없어서 기병을 잃었고, 기병이 없어서 전투에 패했고, 전투에 패해서 나라를 잃었고, 말발굽에 박는 못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네. 마가렛 안젤리스의 '엄마거위'에 나오는 글이다.

사람에게는 콩팥이 두 개 있고 허파가 두 개 있는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 눈이 실명되었어도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가 먹었는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가?

생태계이든 인간이 만든 체계이든 어떤 장치를 고안할 때, 하나의 보조장치 만으로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복사품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하고 유리한 것이다. 그러면 보조장치 중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여분의 보조장치가 계속 작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대개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조 장치들을 여분이라 한다. 즉, 이러한 장치들의 주된 목적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하나의 체계에 여분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앞의 예들과는 달리 여분의 장치나 요소들이 주장치가 고장났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스페어 타이어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갖고 다니지만 네 개의 타이어 중 고장난 경우에만 쓰인다. 두 가지 유형의 여분 중 첫 번째 유형의 여분을 작동중인 여분이라 하고, 두 번째 유형의 여분을 대기중인 여분이라 한다.

여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면 비행기의 두 번째 엔진은 힘과 속력, 그리고 제어능력을 증가시켜주고 사람의 두 번째 눈은 원근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여분의 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대기중인 여분이라는 말은 여분의 비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여분을 남겨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 인간에게 두 눈 외에 두 개의 눈이 더 존재 한다거나 어떤 일이든 첫 번째가 실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계획을 짜 놓아야 하며 핵폭탄이 터져도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터뜨릴 두 번째 폭탄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건 아닐것이다. 이외에 더 함축적인 뜻을 품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임의로 조정가능하지 않고 주어진 것 중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여분만큼만 주어지는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시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시간의 여분은 없다. 젊은 시절 허송세월로 보낸 시간을 대치할 수 있는 여분은 없는 것 같다. 여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대학생활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98년 표현의 규제

검찰, 북 찬양 고무 이적 표현물 … 민미협, 민족 순수성 회복 의도일 뿐

법의 잣대로 예술규정, 창작의 자유로 탈출구 찾아야

중학교 미술시간, 빛과 어둠에 따른 음양의 영역구별을 가르칠 때 미술교사는 교실창가에 가서 삼각뿔을 높이 들어보인다.

"그림자가 어느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오른쪽, 왼쪽 혹은 앞쪽, 뒤쪽을 외친다.

그럼 교사는 알았다는듯 이야기한다. 음영이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술뿐만 아닌 사회의 모든 현상이 보는 이의 사회적·물리적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자명한 원리를 역행하면서까지 예술작품을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은 통일저해 세력인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반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이적표현물이다"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은 화가 신학철(54)씨의 87년작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최종판단을 내리고 무죄선고를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재심을 해도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돼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사건의 발단은 신학철씨가 87년 민족미술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통일전'에 출품·전시했던 모내기 그림이 단국대 민주동문회가 제작한 부채에 사용되다 단속에 걸리고부터 였다. 그해 8월 신학철씨는 구속됐고 구속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긴했지만 검찰과의 지리한 시비는 계속돼 92년 1심, 94년 2심에서 각각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3월 13일 대법원 3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에 그림감정서를 제출한 홍종수(서울 대공전술 연구소 전문위원)씨는 신학철씨가 그림 상하를 남한과 북한으로 그렸는데 북에서 얘기하는 '혁명의 성산'을 백두산으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초가집으로 묘사해 그렸으며 전체적으로 북한은 평화롭게 남한은 통일을 저해하는 미국인, 일본인, 현 위정자, 자본가와 핵무기, 탱크, 양담배, 코카콜라, 양주, 38선의 철조망들 속에서 위태롭게 그려 그림에서 이적성을 가진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성완경(평론가)씨가 제시한 피고측 감정서에 나타난 그림에 대한 의견은 이와 사뭇 다르다. 그림에 묘사된 농촌풍경은 농촌공동체적 삶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며 하단에 그려진 온갖 사악한 힘들과 외래 소비문화의 표상물들은 바다로 쓸어내 강토의 순결성을 회복하자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그림 전반에 걸쳐 그림 하나하나를 묘사적 표현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 표상물로 주목해 종합주의적인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감정서에 대해 민족미술인연합(공동의장=김윤수, 김정헌 이하 민미연)은 검찰측 작품해석이 심증적인 부분에 치우쳐 불투명한 작가의 의도를 재단하고 있으며 그간 작가의 행적을 마치 작품해석의 논증인양 제시하고 있다고 항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됐던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

미술작품의 법적 논쟁에 대해 본교 미술학부 오원배교수 또한 "법차원의 이적성 판결여부는 재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의 잣대가 그림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졌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후 공개심포지엄과 모내기 사건 풍자전 '불온한 상상력전'을 개최한 민미연의 윤용국 사무처장에게 승산없는 법정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단지 재판에서 진다고 해서 이 작품이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예술의 잣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낼 것입니다"고 답했다.

이제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냐, 아니냐?"는 여론은 모아진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뿌리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한 사회적 모순이 남아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앞서 말한 '음영을 보는 개개인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빛 한쪽은 어둠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개개인의 사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자유가 그것도 가장 근본인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진 기자

제2회 대학영화축제를 찾아

"올해도 지켜냈습니다"

경제난 겹쳐 어려운 현실 … 행사 치러내는 의지 돋보여

"일반 극영화와 달리 카메라 워킹 등을 실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지난 8일 세종대 대양홀 강당. 제2회 대학영화축제에 '군(群)'을 출품한 계원조형예전 학생의 설명이다. 20명 남짓한 관객만이 1천7백석 규모를 차지(?)해 '썰렁'했던 행사장은 영화상영이 끝난 뒤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는 관객들의 진지한 태도로 후끈해지기도 했다.

'참다운 정신, 자유로운 창작'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5일부터 6일동안 세종대 대양홀에서 치러진 제2회 대학영화축제는 IMF다 뭐다해서 잔뜩 긴장한 문화예술계에 청량제와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변변한 후원단체도 없는 대학영화패가 오로지 젊음이라는 무기로 '대학영화의 부흥'을 위해 뭉쳤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행사장소도 넓어지고 상영부문에 '해외영화과 초청전' 및 '애니메이션 특별전'이 추가되는 등 그 규모도 커졌으나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팜플렛을 제작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축제기간 중 행사장에서 벌인 모금활동으로 폐막 이틀전인 지난 9일에 팜플렛을 '겨우겨우'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축제 시작 일주일 전쯤에 메인 스폰서가 취소 됐어요. 어렵다고 말들만 하지 말고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 윤은규(경원대)씨의 말이다. '배고픈 모금함' '불쌍한 모금함'이라고 낙서가 돼 있는 모금함이 온몸(?)으로 보여주듯 이번 축제에 적지 않은 개인돈을 '들이부은'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행사 준비위원들에게 돈은 가장 큰 문제였다.

뿐만아니라 한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아쉬운 준비위원들에게 대학영화패 소속 32개 학교 중 19개 대학의 방관적 태도도 행사준비를 힘들게 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단합해서 대학영화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윤은규씨의 말은 차라리 단호했다.

2백여명이 참가한 개막식을 제외하고 평일 관객수는 매우 저조했다. 주관객층인 대학생의 수업이 있는 평일에 진행돼 관객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7호선 침수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었던 것이다. "내년에는 교통편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짓는 그는 70여명의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등 주위의 애정어린 관심에 일단은 이번 영화제가 대학영화를 알리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오는 16일 이번 대학영화축제에 대한 공개평가회가 있을 예정이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대학영화축제에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조직위원회측은 외부 평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한다.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회 대학영화축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올해도 지켜냈습니다!"

김미경 기자

IMF 유행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국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그간 IMF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말은 그야말로 언중유골(言中有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그동안 유행한 말은 시기에 따라 변화했는데, 이를 살펴보았다.

I'M F 대학생들의 성적이 공시되는 11월 즈음해서 나온 말이다. 이는 YS정부의 경제실정을 적절히 꼬집는 말이 됐다.

I'M Fired '고통분담' 운운하면서도 결국은 노동자들만이 피해자가 된 상황을 냉소적으로 나타냈다.

I'M Fighting 우리 다시 뛰십시다. 파아~(최불암 목소리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된 말로 '화이팅 코리아'등 광고 문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I'M Fine 화이팅을 외치며 국민들은 '난 괜찮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I love My Father 실직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아버지에게 희망을! 경제한파로 몸을 움추린 아버지를 위한 말. 연극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다.

I'M Fishing 실직한 아버지들이 고기 잡으러 가신다던데. 고기도 낚고, 인생의 여유도 낚고, 희망도 낚으세요!

I'M a Father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찾자는 의도가 아버지 사이에서 일기 시작했다.

I'M Forgetting 우리 국민이 벌써 IMF를 잊었다고 외국언론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한다. 정말일까?

김미경 기자

대학별곡 제 3계명 대동제편

"나와 함께 먼 길을 걸어와준 것은
경쟁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벗들이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은 경쟁과 승부들.
그 안에서 혹시 함께함의 소중함마저 잊고 있는 건 않을까요?

대학마다 대동(大同)의 분위기로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서로 가슴 맞댈 수 있는 젊음의 특권,
손잡을 때 더욱 커지는 서로의 힘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터놓고 젊은이답게 마음껏 어울려보십시오.
그 소중한 경험이, 여러분이 먼 길을 가는 동안
두고 두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믿음직한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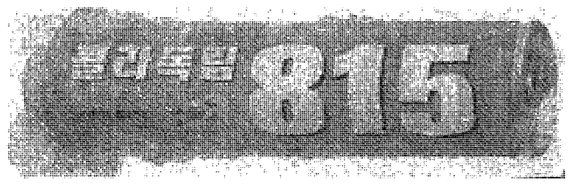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애국심 호소 광고의 실상

"외제다 하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 못지않게 국산은 무조건 사줘야한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애국심 뒤에 숨겨진 수치심"



올해 초부터 애국심 호소 형식의 광고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부분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에서 출발한 것인지, 국민 모두의 정서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지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언제는 애써 외제 냄새를 풍기려고 미처 읽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국적불명의 말들로 상표 이름을 붙이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국산임을 앞다투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로열티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광고전은 급기야 외국 브랜드가 더욱 적극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필라가 전개한 광고 캠페인은 타사의 제품이 말이 좋아 국산이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만들어 상표만 국산으로 붙인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아울러 자사의 제품은 순수 국산 제품으로 수출에까지 기여함을 자랑하고 있다. 어느 제품을 사야 작은 힘이나마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까 고민하는 국민들을 더 큰 갈등에 빠뜨린 것이다.

이런 공방이 가속화되던 중에 한국광고연구원과 중앙리서치가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수입된 국내 상표 제품을 국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생산된 외국 상표 제품을 국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6.4%인데 반해 무려 77%가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단순히 국내 상표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구걸하는 궁색한 상술도 일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놀랍다.

국산 열풍에 편승해 광고 전략을 급선회한 경우도 있다. 화장실에서의 본드 흡입, 어린 여학생의 낙태 등 충격적인 내용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잠뱅이 청바지가 바로 그 경우인데, 1월경 벽에 태극기를 그리는 단정한 청소년 그림의 광고를 하더니 최근에는 '안중근'과 '유관순'이라는 이름의 제품까지 새로 내 놓았다. 명분이야 참 좋다. 저가의 국산 상표 제품을 근간으로 전개하는 나라껴안기가 핵심적인 컨셉트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짧은 시간에 알리기 위해 그 어떤 충격요법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다가 이제 .이름 알리기는 충분히 되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을 찾고자 함을 끝내 감추지는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름은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제품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고객의 정서에서 비롯되어야하는 것이다. 별다른 저항감없이 이런 이름이 청소년들에게 받아들여 진다면 그 인물들이 가진 의미는 그만큼 전락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815'라는 이름의 콜라도 그러하다. 범양식품이 지난 25년간 코카콜라의 바틀러(Bottler, 원액을 본사에서 받아서 병에 담아 생산하는 회사)를 하다가 이제 코카콜라가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진출하자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실컷 펩시콜라를 만들어 팔던 롯데칠성이 사이다를 내세워 콜라를 부정하는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두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제품이고 광고이다. 하지만 시류에 편승해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다분히 담겨있다. 수입 향신료로 만들면서 어떻게 로열티가 없냐고 반박하는 코카콜라의 이야기처럼 다들 눈가리고 아웅거리는 식이다. 외제다 하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 못지않게 국산은 무조건 사줘야한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오늘의 이 위기는 바로 우리들 의식의 이중성과 쉽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벼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할 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양 웅
금강기획 차장

민중가요 "처음처럼 뜨겁게"

구체적 메시지로 대중에게 다가서야

민중가요를 좋아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정작 민중가요의 정의를 물었을때 선뜻 대답할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민중'의 '가요'? 민중은 사전상 억압받는 계층이나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억압받는 사람이나 계층의 노래, 혹은 그들을 소재로 한 노래가 민중가요일까? 사실 민중가요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중가요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문화(反文化)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정확하다. 거칠게 말해서 민중가요의 정의는 '대중가요의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 반대는 대략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먼저 대중가요를 '매너리즘에 빠진 질이 낮은 노래'로 보고 서정성과 음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다. 노찾사의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나 '바람씽씽'같은 민중가요 초기작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 김순남씨나 김영동씨의 작품들이 사회과학서점에 민중가요 테입들과 나란히 서게 된 것도 이런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중가요를 대중가요가 대표하는 정신, '비정치적이고 현실순응적인 체제논리'로 보고 노래의 메시지성, 민족과 계급정체성, 정치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모든 국가에서 민중가요 초기에 등장하는 민요 재발견운동이라든가 80년대를 대표하는 투쟁가풍의 노래들이 그런 입장에서 나온 노래들이다.

따라서 '민중가요'라는 분류에는 장르나 곡의 질적 차별성보다는 대학, 집회, 재야단체, 대학생 등의 노래 외적 구분이 더 크게 힘을 발휘해왔다. 쉽게 말해 대학생들이 수용하는 것, 집회에서 부르는 것은 다 민중가요라는 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민중가요에 있어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었다. 80년대에 학생운동이 힘을 발휘하고 대학이 사회와 다른 독자적인 대학문화를 강력하게 형성할 때 노래 외적 구분에 기댄 민중가요는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다. 민중가요가 직면했던 사회적 요구-시위현장용 노래, 노동가요등-도 큰 시대이긴 했지만 주된 수용자들은 민중가요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인으로서의 모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대학생들이었다. 더구나 군부독재 종식, 민주화라는 이슈들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공감을 얻으면서 그 지식인적 차별성과 고급성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노찾사가 가요톱텐에 오르고 2집의 판매량이 1위를 기록했던 기현상은 저간의 민중가요의 성과가 거둔 결실이기도 했지만 이런 차별성이 상품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대학만의 문화'라는 틀이 무너지고 대중문화가 대학가를 점령하면서 민중가요는 '공간'을 잃었을 뿐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물음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제 민중가요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민중가요의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질문이된 것이다. 하지만 90년대의 노래패들은 문제를 단순한 음악적 수준의 문제로 보았다. 즉, 더 연주 잘하고 더 노래 잘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잘하는게 나쁠것은 없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문제의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래와 연주의 질이라면 돈버는데 목숨건 대중가요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며 따라잡는 것이 목표가 될 필요도 없다. 미국 프로테스트 송의 기수였던 밥딜런은 기타 잘치고 노래 잘해서 평가를 받은 것일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는 어떤가? 민중가요에는 '잘하기'와 다른 나름의 가치가 존재한다.

민중가요의 전망은 그 가치들을 찾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민중가요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골라 안고 일어설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민중가요는 왜 소중한가? '오직 민중가요로만' 풀수 있었던 우리의 갈증은 어떤 것이었을까? 천지인의 '청계천8가'가 연주가 멋져서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평자는 천지인 1집을 '뽕(짝)락'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 평자도 지적했듯이 천지인의 가치는 대중가요의 여느 그룹같은 현란한 연주나 현기증나는 발성이 아니고 그 노래들이 담고 있는 정신의 소중함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려는 지향 같은 것이 말이다. 어떤 이는 그렇다면 '메시지송의 부활'을 의미하는가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일단 대중가요가 접근하기 힘든 민중가요의 가치를 가사와 곡의 의미, 메시지에 두는 것은 맞다. 그러나 메시지송의 대표격인 80년대의 민중가요는 추상적인 메시지들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급급하여 경직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중가요와 차별성이 점점 없어져가는 90년대 대학가 민중가요에 메시지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추상성은 지양되어야할 문제점이다. 이러한 지양의 성공적인 예로 정태춘씨를 들수 있다. 환경문제를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창문열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바람 가을은 어디냐고 묻고 통일과 분단의 아픔을 철조망 넘어 녹슨 철모위에서 쉬는 민통선의 흰나비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유연함과 솔직함, 그 구체성이야말로 지금 민중가요에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것을 마음과 머리로 풀어내는 노래라면, 90년대에도 민중가요는 아름다울수 있을 것이다.

곽 한 영
음악평론가

정태춘씨를 만나

현실 바탕 둔 서정성으로 시대 노래한다

정태춘씨가 5년만에 새 앨범 '정동진/건너간다'를 들고 아내 박은옥씨와 함께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 돌아왔다. 올해는 그가 가수생활을 시작한지 20주년 되는 해. 돌아온 그의 새 앨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첫 앨범 '시인의 마을' 등 초기 서정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평가에 정태춘씨는 불만을 갖는다.

"초기음악부터 지금까지 나는 서정성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며 우는 사람, 흥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서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정성이 없으면 음악도 아니지요."

현실이 바탕이 된 서정성을 강조하는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했던 85년과 86년, '실천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해 '예술의 관점'에 대해 깨우쳤고, 청계피복노조의 일일찻집 공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로써 사회 전반의 모순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네번째 앨범 '떠나가는 배'와 다섯번째 앨범 '북한강에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서정성은 '포크(Folk)음악'에서 비롯된다. 정태춘씨는 포크의 가장 의미있는 부분으로 '문제의식'을 꼽는다. 그에 따르면 '사색적 통기타' 문화가 7·80년대 유일한 저항집단이었던 대학에 뿌리를 내려 대학노래문화, 즉 운동권 노래를 만들어냈고 이와 같은 대학노래문화는 '민중가요'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중가요는 지배체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저항성에 초점을 둔 노래"라며 "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이 제도권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 즉 80년대에는 민중가요 가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민중과 반(反)민중의 개념이 모호해진 지금, 자신은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 민중가요 가수로 알려진 그는 왜 그 타이틀을 부인하는 것일까.

"지금 시대는 80년대를 아우르던 민중과 주류문화였던 반민중의 벽이 허물어졌고, 두 집단모두를 제도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렇기에 '저항성'에 초점을 둔 '민중가요'라는 말은 현시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민중가요를 비롯한 비주류문화는 과거에 투쟁적이고 조직적인 민중집단만을 상대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대중적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으로 바뀌어야 하고, 비주류문화가 한 영역으로 자리잡는 것과 시민운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년 동안 음악활동을 했지만 '향토적' 부분과 '전투적' 부분의 혼재속에 자신의 색깔을 갖지 못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정태춘씨. 그는 그것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는다. 이것은 그의 음악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승화된 서정성에 대한 설명이리라.

김미경 기자

앗! 클릭만 했는데

민중가요가 시위하는 학생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시대도 이제 저물고 있다. 일부에게 소통되는 은어나 방언같이 불리던 민중가요들이 컴퓨터에서 삐져나와 가정 곳곳을 방문하고 대중들을 습격(?), 매료시키기 때문이다. 민중가요는 PC통신망과 인터넷에서 이미 그 활동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텔에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이라는 민중가요 동호회가 있는데 go MJ로 연결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천리안에도 민중가요 동호회 '소리바람'이 있으며 같은 go MJ로 연결할 수 있으며 '노래 하나 햇볕 한줌'은 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인데 작년 서울지역총학생 연합에서 문화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7일 연행된 조용신 동문이 시샵으로 있는 곳이 기도 하다. 유니텔은 '노래로 크는 나무'란 동호회가 있다.

인터넷에서는 민중가요를 사냥할 수 있는 사이트(민중가요 창고=http://apple.cpnet.or.kr/mainga)들이 생기고 있는데 민중가요 홍보·소개에서부터 노래패, 팬클럽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이 같은 통신채널들은 굳이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노래신청곡을 전해준다거나 민중가수들의 근황을 들려주며 민중가요의 열린정보를 제공한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이라면 어느 순간의 습격을 대비해 한번쯤 찾아가 봄도 좋을 듯하다

최진 기자

메아리

부적격자

▲영화 '가타카'가 미래사회의 어두워진 인간삶을 조명한다. 유전적으로 선택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하고 직접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이들. 선택받은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우성인자를 지닌 이들이었고, 신의 아이들은 열성인자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과 미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생을 순리(?)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중 부적격자인 한 아이는 그러한 사회에 반기를 들고 끝내 성공한다. 그 사회의 잣대로 부적격자인 그는 적격자인 동생을 보며 절망에 빠지지만, 동생과의 수영시합을 통해 '의지'는 '신체'를 앞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다. 뼈를 깎는 고통과 엄격한 자기관리로, 위기에 빠질 뻔 하면서도 끝내는 자신의 꿈을 이룬다. 그 영화를 보면서 두려워 졌다.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자신이 적격자, 우성인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을 때, 윤리적으로 지탄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유전학적인 과학기술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일이 생각난다.

▲유전학적인 차별, 태어나는 순간 언제 죽을 것인지 어떤 병에 걸리게 될 것인지 알수 있게 된다. 모발, 눈, 침 등은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버린다. '금발에 푸른 눈' 과거 히틀러가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천명하며 내세웠던 판단 기준이었다. 하등민족(?)인 유태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그 독일인도 하등민족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등민족(?)을 없애 버리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천에 담았었다

▲5월 1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안한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모였고 투쟁했다. 그러나 IMF속의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률이 6.5%를 넘는 불안한 사회이고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떨고 싶다' 그리고 '정신은 신체를 앞설 수 있다'고 더욱 외치고 싶은 이들이 있다. 부적격자(?)라는 판단기준으로 더욱 설 자리를 잃어버린 장애인들.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 '가타카'에서 주인공이 좋은 머리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장애인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판단기준'속에서 더욱 고립돼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그들을 '부적격자'로 더욱 매섭게 몰아가는 무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까 두렵다.

최정식 편집장